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연구

김윤희 · 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연구

저 자 김윤희 · 서정아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윤희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서정아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변주영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득한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고자 함.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에 해당함.
- 기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소년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여 예방 및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소년 법정 재판사건의 기록과 판결문을 조사표 형식에 맞추어 전사 및 입력 작업하여, 주요변인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 데이터화 한 자료와 기초분석을 활용하여, 후속연구에서 심층분석 및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소년법정 재판사건 기록 및 판결문 데이터화
 -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득한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 7,333건의 소년보호사건 기록(2010년부터 2017년까지)을 1) 개요, 2) 사건, 3) 사건특성, 4) 보호소년 특징, 5) 기일결과 특성, 6) 보호자, 보조인, 소송관계인 특성, 7) 기타사항 특성의 7가지 항목에 따라 전사 및 코딩하여, 기록 데이터를 구축함.
 -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판결문을 조사표 형식에 맞춰 코딩 및 입력함.
- 소년법정 재판기록 분석
 - 데이터화된 판결문 기록의 소년범죄 발생사건 및 처리, 소년범의 특성, 소년범죄 범행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소년범 관련 요인의 기초분석을 실시함.

■ 주요결과

- 본 연구는 총 7,333건의 소년법정 재판사건을 기록과 판결문을 조사표 형식에 맞추어 전사 및 입력 작업하여 데이터화하였으며, 주요변인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의 특성, 소년범죄 발생사건 및 처리, 소년범죄 범행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소년범의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15.85세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학업중단한 소년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부모 가정보다는 친부모가정이 많았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소년범은 전체의 약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둘째, 학교징계경험이 있는 소년범은 4.5%에 해당하였으며, 8가지로 구분한 비행경험 중에서는 가출/무단결석/외박의 경험이 가장 많고, 음주/흡연/약물, 중독이 두 번째로 많았음. 셋째, 심리적 특성(ADHD,品行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중에는 ADHD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남. 마지막으로, 소년범의 전과 특성에서 전과 유무는 전과 경험이 있는 소년범(재범)이 전과 경험이 없는 소년범보다 많았으며, 1범의 전과 횟수 경험이 가장 많았고, 전과 이력 중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동종전과가 아닌 경우보다 많았음.

2) 소년범죄 발생 사건 및 처리

- 소년범죄 판결 및 사건 발생 현황을 소년범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판결연도 현황은 2012년의 기록이 가장 많았으며, 사건 발생은 2011년과 2012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년범죄 발생 현황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소년범은 2011년과 2012년에, 여자 소년범은 2011년에 가장 많았고, 발생 연도는 각각 2012년과 2011년에 가장 높았음.

○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10세에서 13세는 판결연도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은 2011년도에 가장 많았음. 14세에서 16세는 판결연도가 2012년에, 사건 발생은 2011년에 가장 높았으며, 17세에서 19세는 판결연도는 2011년, 사건 발생은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년범죄 처분결과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소년보호처분이 86.1%로 총 6,313명이었으며, 세부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1호 처분(감호위탁 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9호 단기소년원 송치 순서대로 빈도가 높게 나타남.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빈도를 세부내용에 따라 분석한 결과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남자는 1호 처분인 감호위탁, 5호 처분인 장기보호관찰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감호위탁인 1호 처분, 소년원 장기 송치 10호 처분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10세에서 13세는 1호 보호처분, 9호 소년원 송치 단기 처분, 14세에서 16세는 감호 위탁이 1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순으로 나타남. 17세에서 19세는 감호 위탁 1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의 순으로 나타남. 20세 이상 소년범도 감호위탁의 1호 처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른 결과는 중/고교 재학중인 소년범은 1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중/고교 졸업한 소년범은 감호 위탁 1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중/고교 학업중단한 소년범은 소년원의 감호위탁 1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관찰 순으로 나타남. 기타 학력의 경우에도 감호 위탁 1호 처분이 가장 높게 나타남.

3) 소년범행특성

●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 특성에서 소년범죄 유형은 재산범죄 > 강력범죄(폭력) > 기타 > 강력범죄(흉악) > 교통범죄 순서대로 많았으며, 평균 1.88건의 사건이 발생, 1건 이상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32.7%이었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소년범은 재산

범죄 > 강력범죄(폭력) > 기타 > 강력범죄(홍악) > 교통범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소년범은 강력범죄(폭력) > 재산범죄 > 기타 > 강력범죄(홍악) > 교통범죄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소년범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기타, 강력범죄(홍악), 교통범죄 순으로 나타남. 여자는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기타, 강력범죄(홍악), 교통범죄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 유형은 10세-13세와 14세-16세 모두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홍악) 순으로 나타났고, 17세-19세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기타, 교통범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세 이상은 기타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학력에 따른 소년범 유형은 중/고교재학중인 소년범과 중/고교졸업의 소년범은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고교학업중단은 재산범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타인 경우, 강력범죄(폭력) 순으로 나타남.

● 소년범 범죄유형에 따라 소년범 판결 및 발생 현황, 소년범 사건 발생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소년범 학교징계 및 비행경험, 심리적 특성, 소년범 전과 특성에 대해 살펴봄.

- 소년범 범죄유형(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폭력, 교통범죄, 기타)은 전반적으로 판결 및 발생 현황이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하였음.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건 발생 수를 살펴보면 모든 범죄는 1건이 가장 많았으며, 재산범죄는 2건, 5건 이상 순으로 나타났고, 강력범죄(홍악)는 2건, 3건 순, 강력범죄(폭력)는 2건, 5건 이상 순으로 나타남. 교통범죄는 2건, 3건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 기타 순으로 나타남. 여자는 강력범죄(폭력)가 가장 많고, 재산범죄, 기타 순으로 나타남.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10-13세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홍악) 순으로, 14-16세와 17-19세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기타 순으로 나타남. 학력을 살펴보면 중/고교 재학중인 경우와 중/고교 졸업인 경우는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기타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 학업 중단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고, 기타, 교통범죄 순으로 나타남.

- 소년범 학교징계 및 비행경험, 심리적 특성, 소년범 전과 특성에 대해 살펴본 특이점을 살펴보면, 학교징계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의 모든 경험(가출/무단결석/외박경험, 약물경험, 중독경험, 노래방/피시방/당구장 출입 경험, 성경험, 음란물 경험)에서 경험이 있는 경우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의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경우, ADHD, 우울증, 그리고 분노조절장애는 재산범죄, 품행장애는 강력범죄(폭력)가 가장 많았음.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전과 유무 차이를 살펴보면 전과 경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모두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홍악) 순으로 나타남.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전과 횟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과 경험이 1범부터 5범까지 모두 재산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동종전과를 살펴보면 전과 경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모두 재산범죄가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음.

● 소년범죄 단독범 및 공범 특성

- 소년범 사건은 단독범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 1명> 3명 이상> 2명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수 결과는 남자와 여자 모두 단독범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남자는 1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 여자는 3명 이상의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과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수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과 학력에서 단독범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1명의 공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년범의 재범 특성

- 소년범의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재범을 하지 않은 소년범은 56.8%였으며, 재범을 한 소년범은 43.2%로 나타남. 전체 소년범의 평균 재범 횟수는 1.07회, 최대 25번의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재범현황은 없음, 1회, 2회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연구

연구보고22-수시03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내용 4
- 3. 연구방법 4

II. 소년법정 재판기록의 개요

- 1. 재판기록의 구성 9
- 2. 재판기록 주요 용어와 해석 9
- 3. 소년범죄 유형별 분류 12
- 4. 주요 항목별 변수 및 입력 방법 13

III. 소년법의 특성

- 1. 소년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1
- 2. 소년법의 학교징계경험 및 비행경험 특성 23
- 3. 소년법의 심리적 특성 25
- 4. 소년법의 전과 특성 26

IV. 소년범죄 발생사건 및 처리

- 1. 소년범죄 발생사건 현황 및 특성 37
- 2. 소년범죄 처분결과 현황 및 특성 59

V. 소년범죄 범행특성

- 1.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 특성 69
- 2. 소년범죄 단독범 및 공범 특성 88
- 3. 소년범의 재범 특성 94

VI. 결론 및 논의 101

참고문헌 105

표 목차

표 II-1. 보호처분의 종류 및 의미	9
표 II-2. 각 범죄의 세부 범죄항목	12
표 II-3. 개요 변수 입력 방법	13
표 II-4. 사건 변수 입력 방법	13
표 II-5. 보호소년 변수 입력 방법	14
표 II-6. 기일결과 변수 입력 방법	16
표 II-7. 보호자, 보조인, 소송관계인 변수 입력 방법	17
표 II-8. 기타 사항 변수 입력 방법	17
표 III-1. 소년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2
표 III-2. 소년범의 학교징계 경험 현황	23
표 III-3. 소년범의 비행경험 현황	24
표 III-4. 소년범의 심리적 특성 현황	25
표 III-5. 소년범의 전과 현황	26
표 III-6. 소년범의 동종전과	27
표 III-7. 성별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29
표 III-8. 연령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30
표 III-9. 학력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32
표 III-10.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33
표 III-11.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34
표 IV-1. 소년범죄 판결연도별 현황	38
표 IV-2. 소년범죄 사건 발생 연도	39
표 IV-3.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41
표 IV-4.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43
표 IV-5.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45
표 IV-6.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47
표 IV-7.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49
표 IV-8. 학교징계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연도 차이	50
표 IV-9. 가출, 무단결석, 외박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51

표 IV-10. 음주, 흡연, 니스흡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53
표 IV-11. 게임, 컴퓨터 중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54
표 IV-12. ADHD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	55
표 IV-13. 품행장애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	56
표 IV-14. 우울증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	58
표 IV-15. 분노조절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	59
표 IV-16. 소년범죄 처분결과 현황	60
표 IV-17. 성별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차이	61
표 IV-18.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61
표 IV-19. 연령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차이	62
표 IV-20.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63
표 IV-21. 학력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차이	64
표 IV-22.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64
표 IV-23.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차이	65
표 IV-24.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차이	66
표 V-1.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69
표 V-2. 소년범 범죄 사건 횟수	70
표 V-3. 성별에 따른 소년범 유형 및 사건 횟수의 차이	72
표 V-4. 연령에 따른 소년범 유형 및 사건 횟수의 차이	73
표 V-5.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 횟수의 차이	75
표 V-6.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 유형 및 사건 횟수의 차이	76
표 V-7.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유형의 차이	77
표 V-8.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판결 연도 차이	79
표 V-9.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건발생 수 차이	80
표 V-10.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82
표 V-11.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의 학교징계 및 비행 경험 유무의 차이 ..	84
표 V-12.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심리적 특성의 차이	86
표 V-13.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전과 특성	87
표 V-14. 소년범죄 공범 유무	88
표 V-15. 소년범죄 공범수	89
표 V-16.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특성의 차이	90
표 V-17.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특성의 차이	91
표 V-18.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특성의 차이	92
표 V-19.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특성의 차이	93

표 V-20.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유무의 차이	93
표 V-21. 소년범의 재범현황	94
표 V-22. 성별에 따른 소년범 재범특성의 차이	95
표 V-23. 연령에 따른 소년범 재범특성의 차이	96
표 V-24. 학력에 따른 소년범 재범 특성의 차이	97
표 V-25.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 특성의 차이	99
표 V-26.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특성의 차이	100

그림 목차

그림 Ⅲ-1. 소년범의 비행경험 현황	25
그림 Ⅲ-2. 소년범의 심리적 특성 현황	26
그림 Ⅲ-3. 소년범의 전과 현황	27
그림 Ⅲ-4. 전과 횟수별 분포	27
그림 Ⅲ-5. 소년범의 동종전과 분포	28
그림 Ⅳ-1. 소년범죄 판결연도별 현황	38
그림 Ⅳ-2. 소년범죄 사건 발생 연도	39
그림 Ⅴ-1.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70
그림 Ⅴ-2. 소년범죄 사건 횟수	71
그림 Ⅴ-3. 소년범죄 공범 유무	88
그림 Ⅴ-4. 소년범죄 공범수	89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대법원의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죄가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사회 분위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남.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으로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에서는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내리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소년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흉포화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소년법 적용 대상을 하향화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데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소년법들의 죄질을 따

* 이 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저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할 경우 완화를 적용해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 오던 것을 20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가석방 허용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이처럼 소년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 양상, 신체적·정신적인 성장, 보호처분의 무용에 따른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타났으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인 14세를 13세 또는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률안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0766):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이는 재범 위험성을 높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2644):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이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사회화되지 않은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년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 허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5377):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책임 기준 연령을 12세로 권고하고 있으며, 책임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바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기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보호소년의 장기간 시설 내 구금보다 사회 내 처우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노르웨이는 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정치권이 나서 언론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자제를 요구하였으며 영국은 형사책임연령이 10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본은 소년형사처벌을 14세로 낮추었으나 소년범죄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승현, 2018).
-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처벌보다 예방과 교화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소년보호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소년범들을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보호하지 못한 사회 또한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 또한 강조되고 있음. 또한 처벌의 범위를 넓혔을 때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객관적 증거 없이 처벌 강화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고 정책화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시되고 있음(경향신문, 2022.3.4.).
- 한편, 최근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에서 대해 발표하였음(법무부, 2022.10.26.).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소년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년범죄의 실질적인 예방법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는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대책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대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소년보호 제도의 지향점을 뒷받침 또는 제안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득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소년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함.

*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 개요: 법원명, 구분, 구분특징, 사건명 등
- 사건 특성: 사건수, 사건시간, 주요범행, 주요 범행장소 등
- 보호소년 특성: 성별, 연령, 전과수, 범죄명, 보호처분, 판결내용, 소년 행동특성(비행관련 피해가해, 심리정서, 특기, 진로), 소속, 현재 학업상태, 기타 특이사항 등
- 기일결과 특성: 판결내용
- 보호자, 보조인, 소송관계인 특성: 보호자 관계, 보조인 특성, 가족구성, 부모혼인 변경상태, 가족구성원별 특성, 기타 특이사항 등
- 기타사항 특성: 해당 보호 소년 중복 여부

○ 데이터화된 소년법정 재판기록의 기초분석 및 각 요인의 관련성 탐구

- 주요 내용 빈도 및 백분율 제시
- 범죄특성, 성별, 판결내용과 재범여부와 관련성 분석 등
- ※ 업무의 특수성, 활용 가능한 예산, 업무수행 가능성, 관련 업무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 입력 업체 선정 후 업무 수행 예정. 단, 이 과정에서 보안 사항 준수 철저

3. 연구방법

○ 소년법정 재판사건 기록 및 판결문 데이터화

-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득한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 7,333건의 소년보호사건 기록(2010년부터 2017년까지)을 1) 개요, 2) 사건, 3) 사건특성, 4) 보호소년 특징, 5) 기일결과 특성, 6) 보호자, 보조인, 소송관계인 특성, 7) 기타사항 특성의 7가지 항목에 따라 전사 및 코딩하여, 기록 데이터를 구축함.
-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판결문을 조사표 형식에 맞춰 코딩 및 입력함. 기록에 없는 자료는 결측치로 처리하였으며, 줄임말 등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일관되게 정리하여 입력함. 데이터 구축에는 판결문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음.

○ 소년법정 재판기록 분석

- 데이터화된 판결문 기록의 소년범죄 발생사건 및 처리, 소년범의 특성, 소년범죄 범행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소년범 관련 요인의 기초분석을 실시함.
- 분석에는 입력된 데이터의 필요한 일부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며, 한 소년범에게 범죄 기록이 여러 건일 경우 최초 범행을 기준으로 분석함.



제2장 소년법정 재판기록의 개요

- 1. 재판기록의 구성
- 2. 재판기록 주요 용어와 해석
- 3. 소년범죄 유형별 분류
- 4. 주요 항목별 변수 및 입력 방법

1. 재판기록의 구성

-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록으로 구성. 2010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지는 창원지방법원, 2013년 2월부터 2017년까지는 부산가정법원의 기록

2. 재판기록 주요 용어와 해석

1) 보호처분의 종류 및 의미

표 II-1. 보호처분의 종류 및 의미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감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보호처분.
https://www.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에서 2022.8.26. 인출

* 이 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4절 주요 항목별 변수 및 입력 방법은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구성하였음.

- 기일 결과에 숫자(1, 2, 3, 4, 5, 6, 7, 8, 9, 10)는 보호처분 구분을 말함. 보호처분의 종류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먼저 1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6개월 동안 이루어지나 6개월 연장 가능함. 2호 보호처분은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수감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며, 100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며, 3호 보호처분은 사회봉사명령으로 14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00시간 이내로 이루어짐. 4호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의미하며, 1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년간 이루어지며, 5호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의미하며 1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년간 이루어지며 1년 연장 가능함. 다음으로 6호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6개월 동안 이루어지나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7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6개월간 이루어지나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또한 8호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9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이루어짐. 10호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년 이내로 장기 소년원 송치하는 것을 의미함.
- 1, 6, 7, 8, 9, 10호 중에는 한 개만 나올 수 있고 나머지 2, 3, 4, 5호는 앞의 1, 6, 7, 8, 9, 10호와 함께 숫자가 나올 수 있음. 즉, 1호 처분을 받으면서 2호 수강명령과 3호 사회봉사명령과 4호 또는 5호의 보호관찰은 함께 병합해서 받을 수 있으나 1호 처분을 받으면서 6호나 7호나 9호나 10호를 함께 받을 수는 없음.

2) 범죄관련 주요 용어 정리*

○ 보호처분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호처분 결정을

* 범죄관련 주요 용어 정리는 '대검찰청(2021). 2021 범죄분석'의 내용을 참고한 것임.

받은 횟수 및 처분결과

○ 소년범죄자

「소년법」(시행 2008.6.22., 법률 제8722호, 2007.12.21., 일부개정)에 따라 19세 미만(14세~18세)의 피의자를 의미함.

○ 공범관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전부 파악하여 범행가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공범 수

검거 여부와 관계없는 실제 공범의 숫자임. 단독은 공범이 없는 경우

○ 재범

본 건 직전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의미임.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

○ 재범기간

전회처분 내용과 관련시켜 계산된 기간으로 직전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재범행위 시까지의 기간임.

○ 구속·불구속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3. 소년범죄 유형별 분류

- 범죄 유형은 크게 형법 체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범죄의 세부 범죄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II-2. 각 범죄의 세부 범죄항목

범죄 유형	세부 범죄항목	범죄 유형	세부 범죄항목
재산범죄	절도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장물		직권남용
	사기		수뢰
	횡령		증뢰
	배임	풍속범죄	도박과 복표
손괴	신앙		
강력범죄 (흉악)	살인	과실범죄	기타음란행위
	강도		과실치사죄
	방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성폭력		실화
강력범죄 (폭력)	폭행	기타	명예
	상해		권리행사방해
	협박		신용업무경매
	공갈		주거침입
	악취와 유인		비밀침해
	체포와 감금		유기
	폭력행위 등(손괴·강요·주거침입 등)		교통방해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무방해
통화	도주와 범인 은닉		
위조범죄	유가증권/인자유표		위증과 증거 인멸
	문서		무고
			인장
	내란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기타		

* 출처: 검찰. (2021). 09. 부록 및 판권. 2021 범죄분석, 통권 154호, 1-27.

4. 주요 항목별 변수 및 입력 방법

1) 개요

표 II-3. 개요 변수 입력 방법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고
1_1*	일련번호	예시) 201509041000_01	· 기일과 시간을 그대로 숫자로 이어서 기재하되 연은 4자리수 월과 일과 시, 순번은 2자리수로 입력(예: 기일이 2010년 5월 5일인 9시 5분인 경우 201005050905, 순번이 6번인 경우 06으로 기재). - 일련번호 앞이 기일, 뒤가 순번임 확인 가능
1_2	법원명	예시) 2010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자료→“창원(지방법원)”으로 기재 2013년 2월 이후 자료→“부산(가정법원)”으로 기재	· 010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창원지방법원, 2013년 2월부터 2017년까지는 부산가정법원의 기록
1_9	사건명	예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흥기 등 상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 내용 그대로 기재

2) 사건

표 II-4. 사건 변수 입력 방법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고
2_1	사건 수	예시) 3	· 몇 번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재
2_2	사건# (1-6)	공범 수 예시) 5	· 사건명에 #번째 반괄호 1) 옆에 적힌 내용 - 소년별로 범행을 여러 번 하거나 한 번에 여러 번 자질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수는 청소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시간	예시) 201411241900	· 시간: 적힌 시간을 그대로 기재 - 범행시간과 범행의 간격 등을 파악하

* 번호는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1_1_1_1 과 같이 아래 바로 연결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고
			기 위해 기재 - 날짜만 적혀있고 시간을 모르는 경우 (“불상”이라고 표현되는 등) 시간을 9999
	주요 범행	예시) 집단폭행, 오토바이 절도 방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성매매 등 강요, 성매매 알선 3회, 오절(오토바이 절도)	· 주요 범행: 주된 범행이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여 표현 그대로 기재 - 기재된 내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범행을 표현 그대로 기재 - 여러 개 있는 경우 복수로 순서대로 기재
	주요 범행 장소	예시) 야외 암벽 등반장, 택시, 노상, 모텔, 피해자 집	· 표현 그대로 기재 -
	피해자 특성	예시) 지적장애인,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강한 아이들에게는 조용한 스타일	-

3) 보호소년

표 II-5. 보호소년 변수 입력 방법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고
3_1	성명	예시) 이수경	· 보호소년의 이름
3_2	생년월일	예시) 200111221	· 보호소년의 생년월일
3_3	성별	예시) 남, 여, 모르겠음	
3_4	재판 당시 연령	예시) 만 13세	· 재판기일에서 생년월일을 뺀 후 재판일 기준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으면 -1
3_5	전과 수	예시) 6회	· 보호소년에 연도 또는 내용으로 적혀 있는 전과수를 기재 · 법원판결이 아닌 학교 징계의 경우에는 전과 수에서는 제외하고, 전과 뒤에 기타 변인 부분에 기재
3_6	전과#	일시 예시) 20150303	· 이름 밑에 전과가 적혀 있는 소년의 경우 #번째 전과 앞에 일시
		범죄명 예시) 특절, 공갈	· 전과 내용을 기재되어 있는 대로 기재
		판결1 보호처분 예시) 특절, 공갈	· 범죄명 옆에 숫자는 받은 처분의 숫자를 있는 대로 (예를 들어 4, 6)이라고 적혀 있는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교
			경우 4호와 6호 처분을 함께 받은 경우) · 이 경우 판결1 보호처분에는 4를 판결2 보호처분에는 6 · 1호 - 10호 처분이 아니더라도 선유(선고유예), 기유(기소유예) 등 적혀 있는 대로 기재
	판결2 보호처분	예시) 6호	· 두 번째 적혀 있는 보호처분 호수
	판결2 내용	예시) 구세군 셸리홈	· 두 번째 적혀 있는 보호처분 호수 옆에 괄호 설명 · 왼쪽 예시의 경우 6호 처분(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받아 구세군 셸리홈에 위탁되었다는 것을 의미
	판결3 보호처분	예시) 1호, 2호, 3호, 4호	· 세 번째 적혀 있는 보호처분 호수기재
	판결3 내용		· 세 번째 적혀 있는 보호처분 호수 옆에 괄호 설명
	판결4 보호처분		· 네 번째 적혀 있는 보호처분 호수기재
	판결4 내용		· 네 번째 적혀 있는 보호처분 호수 옆에 괄호 설명
	판결5 보호처분		· 네 번째 적혀 있는 보호처분 호수기재
	판결5 내용		· 네 번째 적혀 있는 보호처분 호수 옆에 괄호 설명
3_7	기타(학교 징계)	일시 예시) 20140999	· 전과관련 사항에 학교 징계관련사항이 적혀 있으면 기타에 · 연도 월일시 중 미상인 경우는 99 또는 9999로 예를 들어 2014년 9월경으로 표시된 경우는 일을 모르므로 일을 99로 표시하면 됩니다. 학교 징계가 여러 번인 경우 기타1, 기타2로 변수를 추가하여 기재
		징계이유 예시) 학폭	· 징계받은 이유를 그대로 기재
		징계종류 예시) 사회봉사	· 징계의 종류를 그대로 기재
3_8	소년 행동특성 비행 관련피해가해	예시) 음주, 흡연, 성매매, 가출, 피방, 노래방, 당구장, 인터넷 도박, 오토바이, 성경험(3회), 문신(원팔, 가슴, 옹골 연꽃), 성폭행당	· 보호소년의 비행 관련 행동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그대로 기재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교
		함(초등학교 저학년때)	
	소년 행동특성_심리 정서	예시) 충동조절장애	· 보호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
	소년 행동특성_특기	예시) 복싱, 무에타이, 춤, 피아노	· 보호소년의 특기에 대한 내용
	소년 행동특성_진로 관련	예시) 장래희망 가수, 미용 학원 다님, 공기총 선수	· 보호소년의 진로나 장래희망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그대로 기재
3_9	소년 현재 소속 및 학년	예시) 동주여중, 부산국제 영화고 1학년,	· 보호소년의 현재 소속과 학년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기재해 주세요. 소속 또는 학년을 모르는 경우 모르는 부분은 제외하고 기재
	소년 현재 학업 상태	예시) 자유학교 위탁 중, 자퇴, 입학 예정	· 보호소년의 현재 학업관련 상태(소속 및 학년 이외의) · 입학예정인 경우 해당 학교명을 현재 소속 및 학년에 적고 현재 학업 상태에 입학예정이라고 기재

4) 기일결과

표 II-6. 기일결과 변수 입력 방법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교
4_3	기일 결과	판결1 보호처분 예시) 4호, 불(불처분), 외2, 가위탁, 기유, 종전에 가위탁하려다 하지 않음, 검찰송치	· 병합되어 있는 판결의 경우, 경우 앞부터 순서대로 각각 판결1, 판결2, 판결3, 판결4, 판결5에 숫자로 호수 기재 · 해당 판결 오른쪽 괄호에 설명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 밑에 내용에 기재 - 예를 들어 1 (살롱)-2-3-5라고 적혀 있는 경우 판결 1 보호처분에는 1호, 판결1 내용에는 살롱, 판결2 보호처분에는 2호, 판결3 보호처분에는 3호, 판결4 보호처분에는 5호라고 기재 - 불, 외2, 외3 등으로 적혀 있는 경우, -손으로 메모된 내용, 판결 호수 이외에 가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기재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교
			· 기일 결과에 판결의 호수 중 첫 번째 판결 호수를 기재
	판결2 보호처분	예시))	· 두 번째 판결의 호수 기재
	판결3 보호처분	예시))	· 세 번째 판결의 호수 기재
	판결4 보호처분	예시))	· 네 번째 판결의 호수 기재
	판결5 보호처분	예시))	· 다섯 번째 판결의 호수 기재

5) 보호자, 보조인, 소송관계인

표 II-7. 보호자, 보조인, 소송관계인 변수 입력 방법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교
5_2	보호자 관계	예시) 모, 부	· 보호자가 보호소년의 무엇에 해당하는지(부, 모, 형, 누나, 동생, 외조모, 외 조부, 조부, 조모 등)
5_4	가족 특성	가족구성 예시) 부, 모, 남동생, 외조부, 외조모	· 내용 그대로 기재
	부모혼인 변경상태	예시) 2009년 이혼, 소년 초4때 이혼, 소년 유년기에 남편 외도로 이혼 후 부 재혼	· 부모의 이혼, 별거 등 혼인 변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연도와 함께 해당 내용을 그대로 기재 - 예) 2009년 이혼, 2015년 재결합 -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결혼생활 유지 경우) 미기재
5_5	종전	종전시설 예시)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청)	· 종전 시설 또는 센터/기관명을 그대로 기재

6) 기타 사항

표 II-8. 기타 사항 변수 입력 방법

문항	변수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비교
6_1	(자료 내) 해당 보호소년 중복(해당 기간내 재범) 여부	예시) 예, 아니오	· 모든 보호소년 자료를 작성한 후 보호 소년의 이름과 생년월일, 보호자명을 대조하여 동일 소년의 중복여부를 확인(모든 입력이 끝난 후 기재) · 소년의 재범여부와 판결 유형, 범죄 특성들 간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작성

○ — 제3장 소년범의 특성

- 1. 소년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 소년범의 학교징계경험 및 비행경험 특성
- 3. 소년범의 심리적 특성
- 4. 소년범의 전과 특성

본 장에서는 전사 및 입력하여, 데이터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기초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음.

1. 소년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소년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동거여부 상태를 고려하여 가족구성 및 부모의 이혼 여부를 살펴보았음.
- 성별이 나타나지 않은 비율은 31.5%(2,309명)이며, 성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남자 55.4%(4,064명), 여자 13.1%(960명)로 나타남.
-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평균연령은 15.85세이며, 최소연령 10세에서 최대연령 26세까지로 분포되어 있음. 17세에서 19세 43.7%(3,201명)로 가장 많으며, 14세에서 16세 41.9%(3,072명), 10세에서 13세 14.2%(1,045명), 20세 이상은 0.2%(15명)임.
- 학력은 고등학교 학업중단이 18.0%(1,317명)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중학교 학업중단 4.5%(330명), 고등학교 졸업 2.5%(185명), 검정고시(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포함) 2.3%(169명), 중학교 졸업 1.6%(114명), 기타 1.5%(113명), 중학교 재학 0.3%(22명), 고등학교 재학 0.1%(7명),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 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학업중단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0.1%(5명)로 나타남.
- 가족구성은 현재 동거여부 상태를 고려하여 소년범의 10.6%(777명)의 가족구성은 알 수 없었으며, 친부모가정 54.8%(4,016명)로 가장 많고, 한부모가정 22.7%(1,664명), 재혼가정 10.3%(758명)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 부모의 이혼 여부를 살펴본 결과 11.2%(823명)의 소년범의 부모 이혼 여부는 알 수 없었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소년범은 32.9%(2,411명), 경험하지 않은 소년범은 55.9%(4,099명)로 나타남.

표 III-1. 소년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4,064	55.4
	여	960	13.1
	결측	2,309	31.5
연령	10세-13세	1,045	14.3
	14세-16세	3,072	41.9
	17세-19세	3,201	43.7
	20세 이상	15	0.2
	전체	min=10, max=26 ($M=15.85$, $SD=1.85$)	
학력	중학교 재학	22	0.3
	고등학교 재학	7	0.1
	중학교 졸업	114	1.6
	고등학교 졸업	185	2.5
	중학교 학업중단	330	4.5
	고등학교 학업중단	1,317	18.0
	학업중단(학교구분없음)	5	0.1
	검정고시	169	2.3
	기타	113	1.5
	결측	5,071	69.2
가족구성	친부모가정	4,016	54.8
	재혼가정	758	10.3
	한부모가정	1,664	22.7
	기타	118	1.6
	결측	777	10.6
부모 이혼	예	2,411	32.9
	아니오	4,099	55.9
	결측	823	11.2

2. 소년범의 학교징계경험 및 비행경험 특성

- 소년범의 학교징계경험 특성으로는 학교징계 경험유무, 본건과 본건 외의 특성을 살펴보았음.
- 소년범의 학교징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4.5%(329명)이었으며, 본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소년범은 1.8%(134명), 본건 외로 인하여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소년범은 2.7%(195명)임.

표 Ⅲ-2. 소년범의 학교징계 경험 현황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학교징계 경험	아니오	7,004	95.5
	예	소계	329
		본건	134
		본건 외	195

- 소년범의 비행경험 특성으로는 가출/무단결석/외박, 음주/흡연/약물, 중독(게임, 컴퓨터), 범법(도박/성매매), 노래방/피시방/당구장 출입, 성경험, 음란물, 기타(문신/오토바이 등)를 살펴보았음. 소년범의 비행경험은 음주/흡연/약물 57.5% > 가출/무단결석/외박 26.4% > 노래방/피시방/당구장 출입 16.6% > 기타(문신, 오토바이 등) 9.6% > 성경험 9.1% > 음란물 3.1% > 중독(게임/컴퓨터) 0.9% > 범법(도박/성매매) 0.6%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출/무단결석/외박 등 비행을 한 소년범은 26.4%(1,934명), 73.6%(5,399명)가 경험이 없었음. 음주/흡연/약물 등 비행을 한 소년범은 57.5%(4,214명), 42.5%(3,119명)가 경험이 없었음. 게임 또는 컴퓨터 등의 중독 경험이 있는 소년범은 0.9%(67명), 99.1%(7,266명)가 경험이 없었음. 도박 또는 성매매 등 범법 행위를 한 소년범은 0.6%(45명), 99.4%(7,288명)가 경험이 없었음. 노래방/피시방/당구장 출입 등의 비행을 한 소년범은 16.6%(1,219명), 83.4%(6,114명)가 경험이 없었음. 성경험이 있는 소년범은 9.1%(670명), 90.9%(6,663명)가 경험이 없었음. 음란물 시청 경험이 있는 소년범은 3.1%(226명), 96.9%(7,107명)가 경험이 없었음.

문신이 있거나 오토바이 이용 등의 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범이었고, 9.6%(703명), 90.4%(6,630명)가 경험이 없었음.

표 III-3. 소년범의 비행경험 현황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가출/무단결석/외박	아니오	5,399	73.6
	예	1,934	26.4
음주/흡연/약물	아니오	3,119	42.5
	예	4,214	57.5
중독(게임/컴퓨터)	아니오	7,266	99.1
	예	67	0.9
범법(도박/성매매)	아니오	7,288	99.4
	예	45	0.6
노래방/피시방/당구장 출입	아니오	6,114	83.4
	예	1,219	16.6
성경험	아니오	6,663	90.9
	예	670	9.1
음란물	아니오	7,107	96.9
	예	226	3.1
기타(문신, 오토바이 등)	아니오	6,630	90.4
	예	703	9.6

3. 소년범의 심리적 특성

- 소년범의 심리적 특성으로 ADHD,品行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여부를 살펴본 결과, ADHD 2.8% > 우울증 0.6% > 분노조절장애 0.2% >品行장애 0.1%의 순으로 나타남.
- 소년범의 ADHD가 있는 경우 2.8%(206명)이었으며, 97.2%(7,127명)가 없었음. 소년범의 중品行장애가 있는 경우는 0.1%(6명)이었으며, 99.9%(7,327명)가 없었음. 소년범의 우울증이 있는 경우 0.6%(41명)이었으며, 99.4%(7,292명)가 없었음. 소년범의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경우 0.2%(12명)이었으며, 99.8%(7,321명)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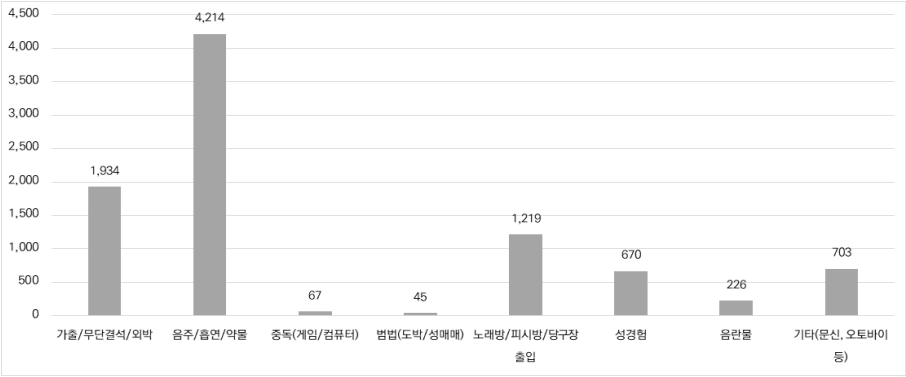


그림 III-1. 소년범의 비행경험 현황

표 III-4. 소년범의 심리적 특성 현황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ADHD	아니오	7,127	97.2
	예	206	2.8
品行장애	아니오	7,327	99.9
	예	6	0.1
우울증	아니오	7,292	99.4
	예	41	0.6
분노조절장애	아니오	7,321	99.8
	예	12	0.2

4. 소년범의 전과 특성

1) 소년범 전과 현황

- 소년범의 전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과가 있는 소년범은 54.7%였으며, 전체 평균 1.38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과 범수는 1범> 2범> 3범> 5범이상> 4범의 순으로 나타남. 전과 이력 중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34.9%인 것으로 나타남.
- 소년범의 전과를 살펴보면 전과가 없는 경우가 45.3%(3,319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 1범인 경우가 21.2%(1,558명), 전과 2범인 경우가 13.3%(978명), 전과 3범인 경우가 7.8%(571명), 전과 5범 이상인 경우가 7.2%(528명), 전과 4범인 경우 5.2%(379명)의 순으로 나타남.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5, 평균값은 1.38, 표준편차는 1.8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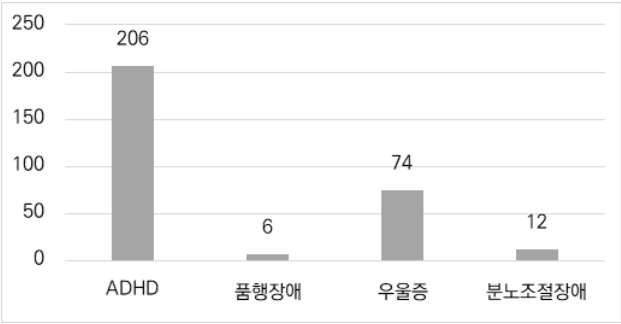


그림 Ⅲ-2. 소년범의 심리적 특성 현황

표 Ⅲ-5. 소년범의 전과 현황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전과	없음	3,319	45.3
	있음	소계	4,014
		1범	1,558
		2범	978
		3범	571
		4범	379
		5범이상	528
	전체	min=0, max=15 ($M=1.38, SD=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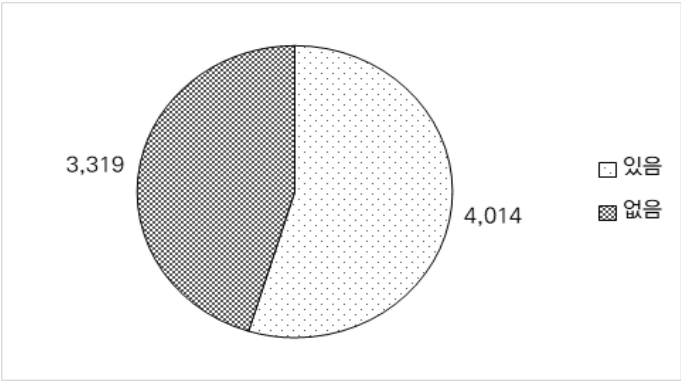


그림 III-3. 소년범의 전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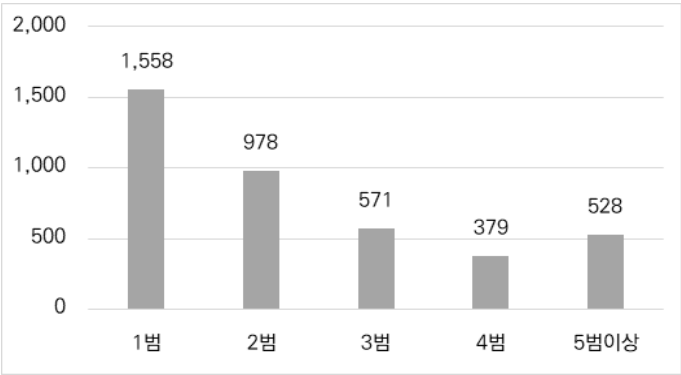


그림 III-4. 전과 횟수별 분포

- 소년범의 동종전과를 살펴보면 동종전과가 있다가 34.9%(2,560명)로 많고, 동종전과가 없다가 19.8%(1,455명)로 나타남.

표 III-6. 소년범의 동종전과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예	2,560	34.9
아니오	1,455	19.8
결측	3,319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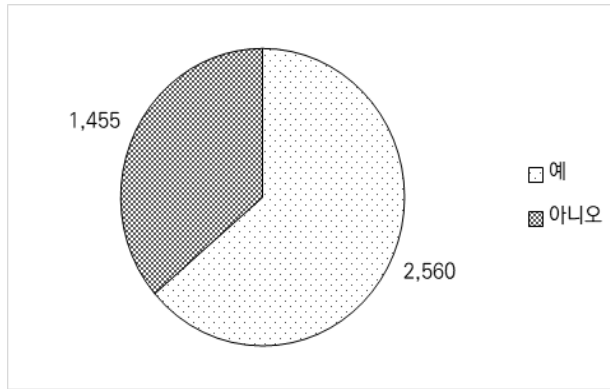


그림 III-5. 소년범의 동종전과 분포

2)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전과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소년범 전과의 차이

- 소년범 성별에 따른 전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과 유무($\chi^2=233.208$, $p<.001$), 전과횟수($\chi^2=60.52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종전과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전과 유무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전과 있음이 47.6%(2,389명)로 많고, 전과 없음이 33.3%(1,675명)로 나타남. 여자는 전과 없음이 9.8%(494명)로 많고, 전과 있음이 9.3%(466명)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남자는 전과가 없는 경우가 33.3%(1,675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 1범인 경우가 16.9%(848명), 전과2범인 경우 11.6%(538명), 전과 5범이상인 경우 7.1%(359명), 전과3범인 경우 7.0%(351명), 전과4범인 경우 4.9%(248명)의 순으로 나타남. 여자는 전과가 없는 경우가 9.8%(494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1범인 경우가 4.2%(212명), 전과 2범인 경우 2.4%(122명), 전과3범인 경우 1.1%(54명), 전과4범인 경우 0.9%(44명), 전과 5범이상인 경우 0.7%(34명)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동종전과 유무를 살펴보면 남자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50.8%(1,425명)로 더 많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31.1%(873명)로 나타남. 여자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12.0%(338명)로 더 많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6.1%(171명)로 나타남.

표 III-7. 성별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구분		남자		여자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과 유무	있음	2,389	47.6	466	9.3	$\chi^2=233.208^{***}$
	없음	1,675	33.3	494	9.8	
	전체	4,064	80.9	960	19.1	
전과 횟수	없음	1,675	33.3	494	9.8	$\chi^2=60.523^{***}$
	1범	848	16.9	212	4.2	
	2범	538	11.6	122	2.4	
	3범	351	7.0	54	1.1	
	4범	248	4.9	44	0.9	
	5범이상	359	7.1	34	0.7	
	전체	4,064	80.9	960	19.1	
동종 전과 유무	있음	873	31.1	171	6.1	$\chi^2=3.445$
	없음	1,425	50.8	338	12.0	
	전체	2,298	81.9	509	18.1	

* $p<.05$, ** $p<.01$, *** $p<.001$

(2) 연령에 따른 소년범 전과의 차이

- 소년범 연령에 따른 전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과유무($\chi^2=1565.569$, $p<.001$), 전과횟수($\chi^2=1693.457$, $p<.001$), 동종전과 유무($\chi^2=7.92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 전과 유무를 살펴보면 10-13세는 전과가 없는 경우가 13.5%(993명)로 많고, 전과가 있는 경우가 0.7%(52명)로 나타남. 14-16세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21.4%(569명)로 많고, 전과가 없는 경우가 20.5%(1,503명)로 나타남. 17-19세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32.4%(2,379명)로 많고, 전과가 없는 경우가 11.2%(822명)로 나타남. 20세 이상은 전과가 있는 경우가 0.2%(14명)로 많고, 전과가 없는 경우가 0.0%(1명)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 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10-13세는 전과가 없는 경우가 13.5%(993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1범인 경우가 0.6%(43명), 전과3범인 경우 0.1%(5명), 전과2범인 경우 0.1%(4명), 전과5범이상인 경우 0.0%(0명)의 순으로 나타남. 14-16세는 전과가 없는 경우가 20.5%(1,503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1범인 경우가 9.7%(714명), 전과2범인 경우가 5.4%(396명), 전과3범인 경우가

2.8%(207명), 전과 5범이상인 경우가 1.8%(129명), 전과4범인 경우가 1.7%(123명)의 순으로 나타남. 17-19세는 전과가 없는 경우가 11.2%(822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1범인 경우가 10.9%(800명), 전과2범인 경우가 7.8%(575명), 전과5범이상인 경우가 5.4%(394명), 전과3범인 경우가 4.9%(356명), 전과4범인 경우가 3.5%(254명) 순으로 나타남. 20세 이상은 전과5범이상인 경우가 0.1%(5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2범인 경우가 0.0%(3명), 전과3범인 경우 0.0%(3명), 전과4범인 경우 0.0%(2명), 전과가 없는 경우 0.0%(1명), 전과1범인 경우 0.0%(1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동종전과 유무를 살펴보면 10-13세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5.8%(232명)로 많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3.4%(136명)로 나타남. 14-16세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26.1%(1,048명)로 많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14.5%(582명)로 나타남. 17-19세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31.6%(1,267명),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18.4%(737명)로 나타남. 20세 이상은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0.3%(13명)로 많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0.0%(0명)로 나타남.

표 III-8. 연령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구분		10-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과 유무	있음	52	0.7	1,569	21.4	2,379	32.4	14	0.2	$\chi^2=$ 1565.569 ***
	없음	993	13.5	1503	20.5	822	11.2	1	0.0	
	전체	1,045	14.3	3,072	41.9	3,201	43.7	15	0.2	
전과 횟수	없음	993	13.5	1,503	20.5	822	11.2	1	0.0	$\chi^2=$ 1693.457 ***
	1범	43	0.6	714	9.7	800	10.9	1	0.0	
	2범	4	0.1	396	5.4	575	7.8	3	0.0	
	3범	5	0.1	207	2.8	356	4.9	3	0.0	
	4범	0	0.0	123	1.7	254	3.5	2	0.0	
	5범 이상	0	0.0	129	1.8	394	5.4	5	0.1	
	전체	1,045	14.3	3,072	41.9	3,201	43.7	15	0.2	
동종 전과 유무	있음	136	3.4	582	14.5	737	18.4	0	0.0	$\chi^2=$ 7.922 *
	없음	232	5.8	1,048	26.1	1,267	31.6	13	0.3	
	전체	368	9.2	1,630	40.6	2,004	49.9	13	0.3	

* $p<.05$, ** $p<.01$, *** $p<.001$

(3) 학력에 따른 소년범 전과의 차이

- 소년범 학력에 따른 전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과 유무, 전과 횟수, 동종 전과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학력에 따른 소년범 전과 유무를 살펴보면 있음은 중/고교 학업중단이 58.9%(1,333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9.8%(222명), 중/고교졸업 8.6%(194명), 중/고교 재학중 0.8%(17명)의 순으로 나타남. 없음은 중/고교 학업중단이 14.1%(319명)로 가장 많고, 중/고교 졸업이 4.6%(105명), 기타 2.7%(60명), 중/고교 재학중 0.5%(12명)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소년범 전과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고교 재학중인 경우 없음이 0.5%(12명)로 가장 많고, 1범이 0.2%(5명), 2범이 0.2%(4명), 4범과 5범이상인 경우 0.1%(3명), 3범이 0.1%(2명)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 졸업인 경우 없음이 4.6%(105명)로 가장 많고, 1범이 3.2%(72명), 2범이 2.2%(50명), 3범이 1.5%(34명), 5범이상인 경우 1.1%(24명), 4범이 0.6%(14명)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 학업중단인 경우 1범이 18.1%(410명)로 가장 많고, 2범이 14.1%(320명), 없음이 14.1%(319명), 3범이 10.3%(232명), 5범이상인 경우 9.5%(215명), 4범이 6.9%(156명)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1범과 5범이상인 경우 2.7%(62명)로 가장 많고, 없음이 2.7%(60명), 2범이 2.3%(51명), 3범이 1.5%(33명), 4범이 0.6%(14명) 순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소년범 동종전과 유무를 살펴보면 있음은 중/고교 학업중단이 26.5%(382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4.2%(61명), 중/고교졸업 3.8%(54명), 중/고교 재학중 0.3%(5명)의 순으로 나타남. 없음은 중/고교 학업중단이 48.7%(701명)로 가장 많고, 중/고교 졸업이 8.3%(120명), 기타 7.4%(106명), 중/고교 재학중 0.8%(1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9. 학력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n=2,262)

구분		중/고교재학중		중/고교졸업		중/고교학업중단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과 유무	있음	17	0.8	194	8.6	1,333	58.9	222	9.8	$\chi^2=43.475$
	없음	12	0.5	105	4.6	319	14.1	60	2.7	
	전체	29	1.3	299	13.2	1,652	73.0	282	12.5	
전과 횟수	없음	12	0.5	105	4.6	319	14.1	60	2.7	$\chi^2=73.297$
	1범	5	0.2	72	3.2	410	18.1	62	2.7	
	2범	4	0.2	50	2.2	320	14.1	51	2.3	
	3범	2	0.1	34	1.5	232	10.3	33	1.5	
	4범	3	0.1	14	0.6	156	6.9	14	0.6	
	5범 이상	3	0.1	24	1.1	215	9.5	62	2.7	
	전체	29	1.3	299	13.2	1,652	73.0	282	12.5	
동종 전과 유무	있음	5	0.3	54	3.8	382	26.5	61	4.2	$\chi^2=1.499$
	없음	11	0.8	120	8.3	701	48.7	106	7.4	
	전체	16	1.1	174	12.1	1,083	75.2	167	11.6	

* $p<.05$, ** $p<.01$, *** $p<.001$

(4) 가족특성에 따른 소년범 전과의 차이

- 소년범 가족특성에 따른 전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과 유무($\chi^2=140.898$, $p<.001$), 전과 횟수($\chi^2=175.95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동종전과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소년범 부모이혼에 따른 전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과 유무($\chi^2=123.707$, $p<.001$), 전과 횟수($\chi^2=145.21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동종전과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 전과유무를 살펴보면 친부모가정인 경우 있음이 31.1%(2,038명), 없음이 30.2%(1,978명)로 나타남. 재혼가정인 경우 있음이 7.6%(497명), 없음이 4.0%(261명)로 나타남. 한부모가정인 경우 있음이 16.5%(1,083명), 없음이 8.9%(581명)로 나타남. 기타는 있음이 1.3%(85명), 없음이 0.5%(33명)로 나타남.

표 III-10.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n=6,556)

구분		친부모가정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과 유무	있음	2,038	31.1	497	7.6	1,083	16.5	85	1.3	$\chi^2=140.898$ ***
	없음	1,978	30.2	261	4.0	581	8.9	33	0.5	
	전체	4,016	61.3	758	11.6	1,664	25.4	118	1.8	
전과 횟수	없음	1,978	30.2	261	4.0	581	8.9	33	0.5	$\chi^2=175.956$ ***
	1범	828	12.6	154	2.3	401	6.1	33	0.5	
	2범	516	7.9	120	1.8	264	4.0	22	0.3	
	3범	281	4.3	83	1.3	158	2.4	10	0.2	
	4범	181	2.8	47	0.7	113	1.7	8	0.1	
	5범 이상	232	3.5	93	1.4	147	2.2	12	0.2	
	전체	4,016	61.3	758	11.6	1,664	25.4	118	1.8	
동종 전과 유무	있음	772	21.3	157	4.3	353	9.8	28	0.8	$\chi^2=.538$
	없음	1,373	37.9	289	8.0	600	16.6	48	1.3	
	전체	2,145	59.3	446	12.3	953	26.3	76	2.1	

* $p<.05$, ** $p<.01$, *** $p<.001$

-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 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없음은 친부모가정은 30.2%(1,978명), 재혼가정은 4.0%(261명), 한부모가정은 8.9%(581명), 기타는 0.5%(33명)로 나타남. 1범은 친부모가정은 12.6%(828명), 재혼가정은 2.3%(154명), 한부모가정은 6.1%(401명), 기타는 0.5%(33명)로 나타남. 2범은 친부모가정은 7.9%(516명), 재혼가정은 1.8%(120명), 한부모가정은 4.0%(264명), 기타는 0.3%(22명)로 나타남. 3범은 친부모가정은 4.3%(281명), 재혼가정은 1.3%(83명), 한부모가정은 2.4%(158명), 기타는 0.2%(10명)로 나타남. 4범은 친부모가정은 2.8%(181명), 재혼가정은 0.7%(47명), 한부모가정은 1.7%(113명), 기타는 0.1%(8명)로 나타남. 5범이상은 친부모가정은 3.5%(232명), 재혼가정은 1.4%(93명), 한부모가정은 2.2%(147명), 기타는 0.2%(12명)로 나타남. 기타는 친부모가정은 0.5%(33명), 재혼가정은 4.0%(261명), 한부모가정은 8.9%(581명), 기타는 0.5%(33명)로 나타남.
-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 동종전과 유무를 살펴보면 친부모가정인 경우 있음이 21.3%(772명), 없음이 37.9%(1,373명)로 나타남. 재혼가정은 있음이 4.3%(157명),

- 없음 8.0%(289명)로 나타남. 한부모가정인 경우, 있음이 9.8%(353명), 없음이 16.6%(600명)로 나타남. 기타는 있음이 0.8%(28명), 없음이 1.3%(48명)로 나타남.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 전과 유무를 살펴보면 이혼은 있음이 24.2%(1,577명), 없음이 12.8%(834명)로 나타남. 비이혼은 있음이 32.3%(2,101명), 없음이 30.7%(1,998명)로 나타남.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 전과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혼은 없음이 12.8%(834명)로 가장 많고, 1범이 8.6%(557명), 2범이 5.9%(381명), 5범이상 3.7%(241명), 3범 3.7%(240명), 4범 2.4%(158명)의 순으로 나타남. 비이혼은 없음이 30.7%(1,998명)로 가장 많고, 1범이 13.1%(855명), 2범이 8.2%(531명), 3범 4.4%(287명), 5범 이상 3.7%(238명), 4범 2.9%(190명)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 전과 동종전과 유무를 살펴보면 이혼은 있음이 14.1%(508명), 없음이 24.6%(885명)로 나타남. 비이혼은 있음이 22.1%(795명), 없음이 39.1%(1,404명)로 나타남.

표 Ⅲ-11.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 전과특성의 차이

구분		이혼		비이혼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과 유무	있음	1,577	24.2	2,101	32.3	$\chi^2=123.707$ ***
	없음	834	12.8	1,998	30.7	
	전체	2,411	37.0	4,099	63.0	
전과 횟수	없음	834	12.8	1,998	30.7	$\chi^2=145.216$ ***
	1범	557	8.6	855	13.1	
	2범	381	5.9	531	8.2	
	3범	240	3.7	287	4.4	
	4범	158	2.4	190	2.9	
	5범이상	241	3.7	238	3.7	
	전체	2,411	37.0	4,099	63.0	
동종 전과 유무	있음	508	14.1	795	22.1	$\chi^2=.037$
	없음	885	24.6	1,404	39.1	
	전체	1,393	38.8	2,199	61.2	

* $p<.05$, ** $p<.01$, *** $p<.001$

○ — 제4장 소년범죄 발생사건 및 처리

- 1. 소년범죄 발생사건 현황 및 특성
- 2. 소년범죄 처분결과 현황 및 특성

1. 소년범죄 발생사건 현황 및 특성

1) 소년범죄 판결 및 사건발생 현황

- 분석자료로 활용한 소년범죄 판결연도 및 사건발생을 연도별로 현황을 살펴보았음. 소년범죄 판결연도는 2012년 18.9% > 2011년 18.4% > 2013년 12.7% > 2014년 12.4% > 2010년 11.6% > 2016년 8.9% > 2015년 7.5% > 2017년 7.5% > 2018년 2.1%의 순으로 나타남. 소년범죄 사건발생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11년, 2012년 15.9% > 2010년 15.2% > 2013년 10.3% > 2014년 8.4% > 2015년 6.8% > 2016년 5.7% > 2017년 5.7% > 2009년 3.4% > 2008년 0.3% > 2007년 0.0%의 순으로 나타남.
- 소년범죄 판결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0년 11.6%(853명), 2011년 18.4%(1,352명), 2012년 18.9%(1,383명), 2013년 12.7%(930명), 2014년 12.4%(910명), 2015년 7.5%(553명), 2016년 8.9%(652명), 2017년 7.4%(545명), 2018년 2.1%(155명)로 나타남.
- 소년범죄 사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 0.0%(1명), 2008년 0.3%(22명), 2009년 3.4%(249명), 2010년 15.2%(1,112명), 2011년 15.9%(1,169명), 2012년 15.9% (1,167명), 2013년 10.3%(754명), 2014년 8.4%(613명), 2015년 8.8%(498명), 2016년 5.7%(417명), 2017년 5.7%(418명)로 나타남.

* 이 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심혜인 교수(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였음.

표 IV-1. 소년범죄 판결연도별 현황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2010년	853	11.6
2011년	1,352	18.4
2012년	1,383	18.9
2013년	930	12.7
2014년	910	12.4
2015년	553	7.5
2016년	652	8.9
2017년	545	7.4
2018년	15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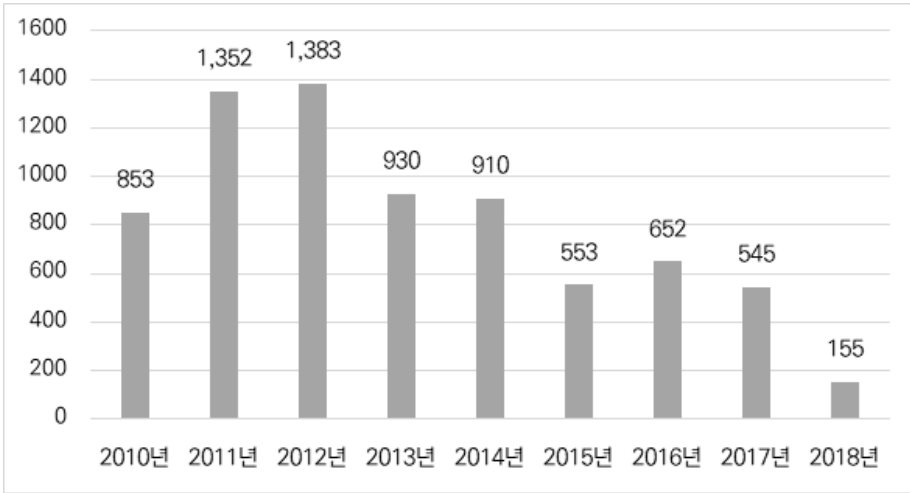


그림 IV-1. 소년범죄 판결연도별 현황

표 IV-2. 소년범죄 사건 발생 연도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2007년	1	0.0
2008년	22	0.3
2009년	249	3.4
2010년	1,112	15.2
2011년	1,169	15.9
2012년	1,167	15.9
2013년	754	10.3
2014년	613	8.4
2015년	498	6.8
2016년	417	5.7
2017년	418	5.7
결측	913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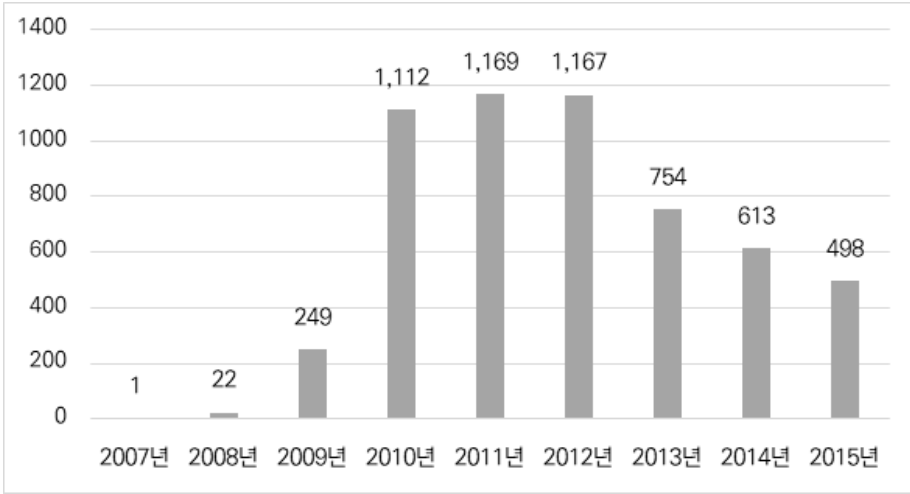


그림 IV-2. 소년범죄 사건 발생 연도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년범죄 발생현황 특성

(1)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발생현황 특성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연도 및 발생연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판결연도를 살펴보았을 때, 남자 소년범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5.5%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 소년범은 2011년에 4.1%로 가장 많았음. 사건발생연도를 살펴보았을 때, 남자 소년범은 2012년 15.7%로 가장 많았고, 여자 소년범은 2011년에 3.6%로 가장 많았음.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남자는 9.4%(472명), 여자는 2.2%(110명), 2011년에는 남자 15.5%(780명), 여자 4.1%(208명), 2012년에는 남자 15.5%(778명), 여자는 3.5%(177명), 2013년에는 10.4%(523명), 여자 2.0%(101명), 2014년에는 남자 8.9%(446명), 여자 2.3%(117명), 2015년에는 남자 6.2%(310명), 여자 1.3%(67명), 2016년에는 남자 7.9%(399명), 여자 1.6%(79명), 2017년에는 남자 5.7%(258명), 여자 1.5%(74명), 2018년에는 남자 1.4%(71명), 여자 0.5%(27명)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발생 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남자는 0.0%(1명), 여자는 0.0%(0명), 2008년에는 남자 0.2%(20명), 여자 0.0%(0명), 2009년에는 남자 2.5%(109명), 여자는 0.9%(37명), 2010년에는 15.4%(671명), 여자 3.3%(143명), 2011년에는 남자 15.5%(673명), 여자 3.6%(158명), 2012년에는 남자 15.7%(681명), 여자 2.9%(125명), 2013년에는 남자 8.3%(361명), 여자 2.1%(90명), 2014년에는 남자 7.7%(334명), 여자 1.6%(68명), 2015년에는 남자 7.1%(311명), 여자 1.2%(54명), 2016년에는 남자 5.1%(221명), 여자 1.0%(38명), 2017년에는 남자 5.1%(223명), 여자 1.0%(42명)로 나타남.

표 IV-3.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구분		남자		여자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472	9.4	110	2.2	$\chi^2=14.645$
	2011년	780	15.5	208	4.1	
	2012년	778	15.5	177	3.5	
	2013년	523	10.4	101	2.0	
	2014년	446	8.9	117	2.3	
	2015년	310	6.2	67	1.3	
	2016년	399	7.9	79	1.6	
	2017년	285	5.7	74	1.5	
	2018년	71	1.4	27	0.5	
	전체	4,064	80.9	960	19.1	
발생연도	2007년	1	0.0	0	0.0	$\chi^2=17.906$
	2008년	20	0.2	0	0.0	
	2009년	109	2.5	37	0.9	
	2010년	671	15.4	143	3.3	
	2011년	673	15.5	158	3.6	
	2012년	681	15.7	125	2.9	
	2013년	361	8.3	90	2.1	
	2014년	334	7.7	68	1.6	
	2015년	311	7.1	54	1.2	
	2016년	221	5.1	38	0.9	
	2017년	223	5.1	42	1.0	
	전체	3,595	82.6	755	17.4	

* $p<.05$, ** $p<.01$, *** $p<.001$

(2)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발생현황 특성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판결연도($\chi^2=86.571$, $p<.001$), 사건발생연도($\chi^2=91.707$, $p<.001$)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세에서 13세는 판결연도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8%로 가장 많았고, 사건발생은 2011년도에 2.5%로 가장 많았음. 14세에서 16세는 판결연도가 2012년에 8.9%로 가장 많았고, 2011년에 8.5%로 사건 발생율이 가장 높음. 17세에서 19세는 판결연도는 2011년 7.5%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율은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10-13세는 1.3%(95명), 14-16세는 5.0%(370명), 17-19세는 5.3%(388명), 20세 이상은 0.0%(0명), 2011

년에는 10-13세는 2.8%(205명), 14-16세는 3.1%(597명), 17-19세는 7.5%(548명), 20세 이상은 0.0%(2명), 2012년에는 10-13세는 2.8%(205명), 14-16세는 8.9%(652명), 17-19세는 7.2%(526명), 20세 이상은 0.0%(0명), 2013년에는 10-13세는 1.9%(136명), 14-16세는 5.0%(365명), 17-19세는 5.8%(428명), 20세 이상은 0.0%(1명), 2014년에는 10-13세는 1.7%(125명), 14-16세는 4.6%(335명), 17-19세는 6.1%(446명), 20세 이상은 0.1%(4명), 2015년에는 10-13세는 0.8%(62명), 14-16세는 3.0%(218명), 17-19세는 3.7%(268명), 20세 이상은 0.1%(5명), 2016년에는 10-13세는 1.4%(102명), 14-16세는 3.3%(244명), 17-19세는 4.1%(304명), 20세 이상은 0.0%(2명), 2017년에는 10-13세는 1.2%(91명), 14-16세는 3.0%(217명), 17-19세는 3.2%(236명), 20세 이상은 0.0%(1명), 2018년에는 10-13세는 0.3%(24명), 14-16세는 1.0%(74명), 17-19세는 0.8%(57명), 20세 이상은 0.0%(0명)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10-13세는 0.0%(0명), 14-16세는 0.0%(0명), 17-19세는 0.0%(1명), 20세 이상은 0.0%(0명), 2008년에는 10-13세는 0.0%(0명), 14-16세는 0.1%(7명), 17-19세는 0.2%(15명), 20세 이상은 0.0%(0명), 2009년에는 10-13세는 0.4%(24명), 14-16세는 1.8%(116명), 17-19세는 1.7%(109명), 20세 이상은 0.0%(0명), 2010년에는 10-13세는 2.2%(143명), 14-16세는 7.7%(493명), 17-19세는 7.4%(476명), 20세 이상은 0.0%(0명), 2011년에는 10-13세는 2.5%(161명), 14-16세는 8.5%(461명), 17-19세는 7.2%(461명), 20세 이상은 0.0%(0명), 2012년에는 10-13세는 3.0%(191명), 14-16세는 7.8%(499명), 17-19세는 7.4%(477명), 20세 이상은 0.0%(0명), 2013년에는 10-13세는 2.1%(137명), 14-16세는 4.2%(267명), 17-19세는 5.4%(349명), 20세 이상은 0.0%(1명), 2014년에는 10-13세는 1.6%(102명), 14-16세는 3.8%(245명), 17-19세는 4.1%(265명), 20세 이상은 0.0%(1명), 2015년에는 10-13세는 1.0%(66명), 14-16세는 2.8%(178명), 17-19세는 4.0%(254명), 20세 이상은 0.0%(0명), 2016년에는 10-13세는 1.4%(88명), 14-16세는 2.4%(154명), 17-19세는 2.7%(175명), 20세 이상은 0.0%(0명), 2017년에는 10-13세는 1.3%(68명), 14-16세는 2.7%(173명), 17-19세는 2.5%(159명), 20세 이상은 0.0%(0명)로 나타남.

표 IV-4.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구분		10-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95	1.3	370	5.0	388	5.3	0	0.0	$\chi^2=86.571$ ***
	2011년	205	2.8	597	8.1	548	7.5	2	0.0	
	2012년	205	2.8	652	8.9	526	7.2	0	0.0	
	2013년	136	1.9	365	5.0	428	5.8	1	0.0	
	2014년	125	1.7	335	4.6	446	6.1	4	0.1	
	2015년	62	0.8	218	3.0	268	3.7	5	0.1	
	2016년	102	1.4	244	3.3	304	4.1	2	0.0	
	2017년	91	1.2	217	3.0	236	3.2	1	.0	
	2018년	24	0.3	74	1.0	57	0.8	0	0.0	
	전체	1,045	14.3	3,072	41.9	3,201	43.7	15	0.2	
발생연도	2007년	0	0.0	0	0.0	1	0.0	0	0.0	$\chi^2=91.707$ ***
	2008년	0	0.0	7	0.1	15	0.2	0	0.0	
	2009년	24	0.4	116	1.8	109	1.7	0	0.0	
	2010년	143	2.2	493	7.7	476	7.4	0	0.0	
	2011년	161	2.5	547	8.5	461	7.2	0	0.0	
	2012년	191	3.0	499	7.8	477	7.4	0	0.0	
	2013년	137	2.1	267	4.2	349	5.4	1	0.0	
	2014년	102	1.6	245	3.8	265	4.1	1	0.0	
	2015년	66	1.0	178	2.8	254	4.0	0	0.0	
	2016년	88	1.4	154	2.4	175	2.7	0	0.0	
	2017년	68	1.3	173	2.7	159	2.5	0	0.0	
	전체	998	15.5	2,679	41.7	2,741	42.7	2	0.0	

* $p<.05$, ** $p<.01$, *** $p<.001$

(3)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발생현황 특성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현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판결연도($\chi^2=122.072$, $p<.001$)와 사건 발생연도($\chi^2=89.836$, $p<.001$)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중/고교 재학중 소년범죄 판결연도는 2013년 0.7%로 가장 많고, 사건 발생연도는 2012년 0.6%로 가장 많았음. 중/고교 졸업 소년범죄 판결연도는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2.3%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연도는 2010년에 2.8%로 가장 많았음. 중/고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판결연도는 2012년 15.1%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연도는 2011년 14.6%로 가장 많았음. 기타 학력의 소년범은 판결연도는 2014년 2.4%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연도는 2011년 2.5%로 가장 많았음.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중/고교재학중은 0.0%(1명),

중/고교졸업은 1.3%(29명), 중/고교학업중단은 8.0%(181명), 기타는 0.5%(12명), 2011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1%(2명), 중/고교졸업은 2.3%(53명), 중/고교학업중단은 15.0%(339명), 기타는 2.1%(47명), 2012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3%(7명), 중/고교졸업은 1.3%(29명), 중/고교학업중단은 15.1%(342명), 기타는 2.1%(47명), 2013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7%(16명), 중/고교졸업은 1.7%(39명), 중/고교학업중단은 10.5%(238명), 기타는 1.6%(36명), 2014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0%(0명), 중/고교졸업은 2.3%(53명), 중/고교학업중단은 9.5%(214명), 기타는 2.4%(55명), 2015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0%(1명), 중/고교졸업은 1.4%(32명), 중/고교학업중단은 5.3%(121명), 기타는 1.4%(31명), 2016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0%(0명), 중/고교졸업은 1.1%(24명), 중/고교학업중단은 4.9%(110명), 기타는 1.1%(24명), 2017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1%(2명), 중/고교졸업은 1.2%(27명), 중/고교학업중단은 3.5%(80명), 기타는 1.2%(28명), 2018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0%(0명), 중/고교졸업은 0.6%(13명), 중/고교학업중단은 1.2%(27명), 기타는 0.1%(2명)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중/고교재학중은 0.0%(0명), 중/고교졸업은 0.0%(0명), 중/고교학업중단은 0.0%(0명), 기타는 0.0%(1명), 2008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0%(0명), 중/고교졸업은 0.1%(2명), 중/고교학업중단은 0.3%(6명), 기타는 0.0%(0명), 2009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0%(0명), 중/고교졸업은 0.3%(5명), 중/고교학업중단은 2.7%(50명), 기타는 0.1%(2명), 2010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1%(2명), 중/고교졸업은 2.8%(53명), 중/고교학업중단은 13.3%(248명), 기타는 1.3%(25명), 2011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4%(8명), 중/고교졸업은 1.4%(27명), 중/고교학업중단은 14.6%(273명), 기타는 2.5%(47명), 2012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6%(11명), 중/고교졸업은 2.3%(42명), 중/고교학업중단은 14.5%(271명), 기타는 2.1%(41명), 2013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1%(1명), 중/고교졸업은 2.2%(41명), 중/고교학업중단은 8.9%(165명), 기타는 1.8%(34명), 2014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1%(1명), 중/고교졸업은 1.7%(32명), 중/고교학업중단은 6.5%(122명), 기타는 2.1%(39명), 2015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0%(0명), 중/고교졸업은 1.5%(28명), 중/고교학업중단은 5.2%(96명), 기타는 1.1%(20명), 2016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1%(2명), 중/

고교졸업은 0.8%(15명), 중/고교학업중단은 2.9%(54명), 기타는 1.1%(21명), 2017년에는 중/고교재학중은 0.0%(0명), 중/고교졸업은 1.0%(19명), 중/고교학업중단은 2.6%(48명), 기타는 0.6%(12명)로 나타남.

표 IV-5.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구분		중/고교재학중		중/고교졸업		중/고교학업중단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1	0.0	29	1.3	181	8.0	12	0.5	$\chi^2=122.072$ ***
	2011년	2	0.1	53	2.3	339	15.0	47	2.1	
	2012년	7	0.3	29	1.3	342	15.1	47	2.1	
	2013년	16	0.7	39	1.7	238	10.5	36	1.6	
	2014년	0	0.0	53	2.3	214	9.5	55	2.4	
	2015년	1	0.0	32	1.4	121	5.3	31	1.4	
	2016년	0	0.0	24	1.1	110	4.9	24	1.1	
	2017년	2	0.1	27	1.2	80	3.5	28	1.2	
	2018년	0	0.0	13	0.6	27	1.2	2	0.1	
	전체	29	1.3	299	13.2	1,652	73.0	282	12.5	
발생연도	2007년	0	0.0	0	0.0	0	0.0	1	0.0	$\chi^2=89.836$ ***
	2008년	0	0.0	2	0.1	6	0.3	0	0.0	
	2009년	0	0.0	5	0.3	50	2.7	2	0.1	
	2010년	2	0.1	53	2.8	248	13.3	25	1.3	
	2011년	8	0.4	27	1.4	273	14.6	47	2.5	
	2012년	11	0.6	42	2.3	271	14.5	41	2.2	
	2013년	1	0.1	41	2.2	165	8.9	34	1.8	
	2014년	1	0.1	32	1.7	122	6.5	39	2.1	
	2015년	0	0.0	28	1.5	96	5.2	20	1.1	
	2016년	2	0.1	15	0.8	54	2.9	21	1.1	
	2017년	0	0.0	19	1.0	48	2.6	12	0.6	
	전체	25	1.3	264	14.2	1,333	71.5	242	13.0	

* $p<.05$, ** $p<.01$, *** $p<.001$

(4) 가족특성에 따른 소년범죄 발생현황 특성

-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연도($\chi^2=60.733$, $p<.001$)와 사건 발생연도($\chi^2=59.755$,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친부모가정

은 판결연도는 2012년 12.1%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연도는 2011년 11.9%로 가장 많았음. 재혼가정은 2012년 2.7%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연도는 2012년 2.4%로 가장 많았음. 한부모가정은 판결연도는 2012년 4.8%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연도는 2012년 4.5%로 가장 많았음. 기타 판결연도는 2010년, 2011년, 2014년 각각 0.3%로 가장 많았으며, 사건 발생연도는 2010년, 2011년, 2012년에 각각 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친부모가정은 7.3%(477명), 재혼가정은 1.1%(75명), 한부모가정은 2.3%(148명), 기타가정은 0.3%(19명), 2011년에 친부모가정은 11.8%(772명), 재혼가정은 1.9%(124명), 한부모가정은 4.2%(278명), 기타가정은 0.3%(22명), 2012년에 친부모가정은 12.1%(790명), 재혼가정은 2.7%(174명), 한부모가정은 4.8%(316명), 기타가정은 0.2%(14명), 2013년에 친부모가정은 7.2%(475명), 재혼가정은 1.5%(97명), 한부모가정은 3.5%(230명), 기타가정은 0.2%(16명), 2014년에 친부모가정은 7.3%(473명), 재혼가정은 1.5%(96명), 한부모가정은 2.5%(230명), 기타가정은 0.3%(18명), 2015년에 친부모가정은 4.3%(285명), 재혼가정은 1.0%(66명), 한부모가정은 2.2%(147명), 기타가정은 0.1%(4명), 2016년에 친부모가정은 5.3%(347명), 재혼가정은 0.9%(57명), 한부모가정은 2.4%(158명), 기타가정은 0.2%(15명), 2017년에 친부모가정은 4.9%(324명), 재혼가정은 0.7%(48명), 한부모가정은 1.7%(111명), 기타가정은 0.1%(9명), 2018년에 친부모가정은 1.1%(73명), 재혼가정은 0.3%(21명), 한부모가정은 0.7%(46명), 기타가정은 0.0%(1명)로 나타남.
-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친부모가정은 0.0%(0명), 재혼가정은 0.0%(0명), 한부모가정은 0.0%(1명), 기타가정은 0.0%(0명), 2008년에 친부모가정은 0.2%(9명), 재혼가정은 0.1%(3명), 한부모가정은 0.1%(5명), 기타가정은 0.1%(6명), 2009년에 친부모가정은 2.4%(142명), 재혼가정은 0.3%(15명), 한부모가정은 0.7%(43명), 기타가정은 0.1%(6명), 2010년에 친부모가정은 11.6%(675명), 재혼가정은 1.5%(90명), 한부모가정은 3.6%(212명), 기타가정은 0.3%(20명), 2011년에 친부모가정은 11.9%(695명), 재혼가정은 2.1%(121명), 한부모가정은 4.2%(248명), 기타가정은 0.3%(16명), 2012년에 친부모가정은 11.1%(650명), 재혼가정은 2.4%(140명), 한부모가정은 4.5%(262명),

기타가정은 0.3%(17명), 2013년에 친부모가정은 6.8%(397명), 재혼가정은 1.2%(70명), 한부모가정은 3.7%(218명), 기타가정은 0.2%(14명), 2014년에 친부모가정은 6.1%(357명), 재혼가정은 1.1%(66명), 한부모가정은 2.2%(128명), 기타가정은 0.1%(7명), 2015년에 친부모가정은 4.6%(267명), 재혼가정은 0.8%(48명), 한부모가정은 2.3%(134명), 기타가정은 0.2%(9명), 2016년에 친부모가정은 4.1%(242명), 재혼가정은 0.7%(38명), 한부모가정은 1.5%(90명), 기타가정은 0.1%(5명), 2017년에 친부모가정은 4.2%(245명), 재혼가정은 0.7%(40명), 한부모가정은 1.6%(93명), 기타가정은 0.0%(2명)로 나타남.

표 IV-6.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구분		친부모가정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477	7.3	75	1.1	148	2.3	19	0.3	$\chi^2=60.733^{***}$
	2011년	772	11.8	124	1.9	278	4.2	22	0.3	
	2012년	790	12.1	174	2.7	316	4.8	14	0.2	
	2013년	475	7.2	97	1.5	230	3.5	16	0.2	
	2014년	473	7.2	96	1.5	230	3.5	18	0.3	
	2015년	285	4.3	66	1.0	147	2.2	4	0.1	
	2016년	347	5.3	57	0.9	158	2.4	15	0.2	
	2017년	324	4.9	48	0.7	111	1.7	9	0.1	
	2018년	73	1.1	21	0.3	46	0.7	1	0.0	
	전체	4,016	61.3	758	11.6	1,664	25.4	118	1.8	
발생연도	2007년	0	0.0	0	0.0	1	0.0	0	0.0	$\chi^2=59.755^{**}$
	2008년	9	0.2	3	0.1	5	0.1	0	0.0	
	2009년	142	2.4	15	0.3	43	0.7	6	0.1	
	2010년	675	11.6	90	1.5	212	3.6	20	0.3	
	2011년	695	11.9	121	2.1	248	4.2	16	0.3	
	2012년	650	11.1	140	2.4	262	4.5	17	0.3	
	2013년	397	6.8	70	1.2	218	3.7	14	0.2	
	2014년	357	6.1	66	1.1	128	2.2	7	0.1	
	2015년	267	4.6	48	0.8	134	2.3	9	0.2	
	2016년	242	4.1	38	0.7	90	1.5	5	0.1	
	2017년	245	4.2	40	0.7	93	1.6	2	0.0	
	전체	3,679	63.0	631	10.8	1,434	24.6	96	1.6	

* $p<.05$, ** $p<.01$, *** $p<.001$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결연도($\chi^2=44.443$, $p<.001$)와 사건 발생연도($\chi^2=40.722$,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판결연도 비율은 2012년 7.5% > 2011년 6.2% > 2013년, 2014년 5.0%의 순으로 나타남. 부모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판결연도 비율은 2012년 12.3% > 2011년 12.1% > 2010년, 2013년, 2014년 7.5%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이혼가정은 3.3%(212명), 비이혼가정은 7.5%(489명), 2011년에 이혼가정은 6.2%(401명), 비이혼가정은 12.1%(788명), 2012년에 이혼가정은 7.5%(489명), 비이혼가정은 12.3%(801명), 2013년에 이혼가정은 5.0%(328명), 비이혼가정은 7.5%(488명), 2014년에 이혼가정은 5.0%(324명), 비이혼가정은 7.5%(485명), 2015년에 이혼가정은 3.3%(212명), 비이혼가정은 4.5%(290명), 2016년에 이혼가정은 3.3%(218명), 비이혼가정은 5.5%(355명), 2017년에 이혼가정은 2.4%(159명), 비이혼가정은 5.1%(330명), 2018년에 이혼가정은 1.0%(68명), 비이혼가정은 1.1%(73명)로 나타남.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이혼가정은 0.0%(1명), 비이혼가정은 0.0%(0명), 2008년에 이혼가정은 0.1%(7명), 비이혼가정은 0.2%(9명), 2009년에 이혼가정은 0.8%(49명), 비이혼가정은 2.5%(145명), 2010년에 이혼가정은 5.2%(303명), 비이혼가정은 11.9%(691명), 2011년에 이혼가정은 6.4%(369명), 비이혼가정은 12.2%(709명), 2012년에 이혼가정은 6.9%(402명), 비이혼가정은 11.4%(663명), 2013년에 이혼가정은 4.9%(286명), 비이혼가정은 7.0%(405명), 2014년에 이혼가정은 3.3%(191명), 비이혼가정은 6.3%(364명), 2015년에 이혼가정은 3.2%(184명), 비이혼가정은 4.7%(273명), 2016년에 이혼가정은 2.2%(129명), 비이혼가정은 4.2%(246명), 2017년에 이혼가정은 2.3%(134명), 비이혼가정은 4.2%(245명)로 나타남.

표 IV-7.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 및 발생연도 차이

구분		이혼		비이혼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212	3.3	489	7.5	$\chi^2=44.443^{***}$
	2011년	401	6.2	788	12.1	
	2012년	489	7.5	801	12.3	
	2013년	328	5.0	488	7.5	
	2014년	324	5.0	485	7.5	
	2015년	212	3.3	290	4.5	
	2016년	218	3.3	355	5.5	
	2017년	159	2.4	330	5.1	
	2018년	68	1.0	73	1.1	
	전체	2,411	37.0	4,099	63.0	
발생연도	2007년	1	0.0	0	0.0	$\chi^2=40.722^{***}$
	2008년	7	0.1	9	0.2	
	2009년	49	0.8	145	2.5	
	2010년	303	5.2	691	11.9	
	2011년	369	6.4	709	12.2	
	2012년	402	6.9	663	11.4	
	2013년	286	4.9	405	7.0	
	2014년	191	3.3	364	6.3	
	2015년	184	3.2	273	4.7	
	2016년	129	2.2	246	4.2	
	2017년	134	2.3	245	4.2	
	전체	2,055	35.4	3,750	64.6	

* $p<.05$, ** $p<.01$, *** $p<.001$

3) 소년범의 학교징계 경험과 범죄현황의 차이

○ 소년범의 학교징계 경험과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결연도($\chi^2=131.230$, $p<.001$)와 사건 발생연도($\chi^2=102.71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징계경험이 있는 경우, 판결연도는 2012년 1.5%, 2013년 0.8%, 2014년 0.8% 순으로 많았고, 발생연도는 2012년 1.5%, 2011년 0.7%, 2013년 0.7%, 2014년 0.7% 순으로 많았음.

- 학교징계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학교징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11.6%(851명), 있는 경우는 0.0%(2명), 2011년에는 무 18.3%(1,341명), 유 0.2%(11명), 2012년에는 무 17.4%(1,275명), 유 1.5%(108명), 2013년에는 무 11.9%(874명), 유 0.8%(56명), 2014년에는 무 11.6%(580명), 유 0.8%(60

명), 2015년에는 무 1.2%(531명), 유 0.3%(22명), 2016년에는 무 8.4%(619명), 유 0.5%(33명), 2017년에는 무 7.1%(518명), 유 0.4%(27명), 2018년에는 무 2.0%(145명), 유 0.1%(10명)로 나타남.

- 학교징계 유무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발생 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학교징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0.0%(1명), 경험이 있는 경우는 0.0%(0명), 2008년에는 무 0.3%(21명), 유 0.0%(1명), 2009년에는 무 3.9%(248명), 유 0.0%(1명), 2010년에는 무 17.2%(1,105명), 유 0.1%(7명), 2011년에는 무 17.6%(1,127명), 유 0.7%(42명), 2012년에는 무 16.7%(1,070명), 유 1.5%(97명), 2013년에는 무 11.1%(711명), 유 0.7%(43명), 2014년에는 무 8.9%(570명), 유 0.7%(43명), 2015년에는 무 7.4%(474명), 유 0.4%(24명), 2016년에는 무 6.0%(388명), 유 0.5%(29명), 2017년에는 무 6.3%(402명), 유 0.2%(16명)로 나타남.

표 IV-8. 학교징계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죄 판결연도 차이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 도	2010년	851	11.6	2	0.0
	2011년	1,341	18.3	11	0.2
	2012년	1,275	17.4	108	1.5
	2013년	874	11.9	56	0.8
	2014년	580	11.6	60	0.8
	2015년	531	1.2	22	0.3
	2016년	619	8.4	33	0.5
	2017년	518	7.1	27	0.4
	2018년	145	2.0	10	0.1
	전체	7,004	95.5	329	4.5
발생 연도	2007년	1	0.0	0	0.0
	2008년	21	0.3	1	0.0
	2009년	248	3.9	1	0.0
	2010년	1,105	17.2	7	0.1
	2011년	1,127	17.6	42	0.7
	2012년	1,070	16.7	97	1.5
	2013년	711	11.1	43	0.7
	2014년	570	8.9	43	0.7
	2015년	474	7.4	24	0.4
	2016년	388	6.0	29	0.5
	2017년	402	6.3	16	0.2
	전체	6,117	95.3	303	4.7

* $p < .05$, ** $p < .01$, *** $p < .001$

4) 소년범의 비행경험과 범죄현황의 차이

- 가출, 무단결석, 외박 경험 유무에 따른 비행경험과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결연도($\chi^2=258.495$, $p<.001$)와 사건 발생연도($\chi^2=153.95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출, 무단결석, 외박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가출, 무단결석, 외박 경험이 없는 경우는 10.4%(765명), 유는 1.2%(88명), 2011년에는 무 15.2%(1,115명), 유 3.2%(237명), 2012년에는 무 12.5%(915명), 유 6.4%(468명), 2013년에는 무 8.8%(647명), 유 3.9%(283명), 2014년에는 무 9.2%(672명), 유 3.2%(238명), 2015년에는 무 5.0%(365명), 유 2.6%(188명), 2016년에는 무 6.1%(449명), 유 2.8%(203명), 2017년에는 무 5.1%(377명), 유 2.3%(168명), 2018년에는 무 1.3%(94명), 유 0.8%(61명)로 나타남.
 - 가출, 무단결석, 외박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학교징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0.0%(1명), 경험이 있는 경우는 0.0%(0명), 2008년에는 무 0.3%(20명), 유 0.0%(2명), 2009년에는 무 3.6%(231명), 유 0.3%(18명), 2010년에는 무 14.9%(956명), 유 2.5%(156명), 2011년에는 무 13.6%(874명), 유 1.6%(295명), 2012년에는 무 12.4%(793명), 유 5.8%(374명), 2013년에는 무 8.6%(555명), 유 3.1%(199명), 2014년에는 무 7.1%(455명), 유 2.5%(158명), 2015년에는 무 5.6%(361명), 유 2.1%(137명), 2016년에는 무 4.7%(300명), 유 1.8%(117명), 2017년에는 무 4.8%(308명), 유 1.7%(110명)로 나타남.

표 IV-9. 가출, 무단결석, 외박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765	10.4	88	1.2	$\chi^2=258.495$ ***
	2011년	1,115	15.2	237	3.2	
	2012년	915	12.5	468	6.4	
	2013년	647	8.8	283	3.9	
	2014년	672	9.2	238	3.2	
	2015년	365	5.0	188	2.6	
	2016년	449	6.1	203	2.8	
	2017년	377	5.1	168	2.3	
	2018년	94	1.3	61	0.8	
전체		5,399	73.63	1,934	26.4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발생연도	2007년	1	0.0	0	0.0	$\chi^2=153.956$ ***
	2008년	20	0.3	2	0.0	
	2009년	231	3.6	18	0.3	
	2010년	956	14.9	156	2.5	
	2011년	874	13.6	295	1.6	
	2012년	793	12.4	374	5.8	
	2013년	555	8.6	199	3.1	
	2014년	455	7.1	158	2.5	
	2015년	361	5.6	137	2.1	
	2016년	300	4.7	117	1.8	
	2017년	308	4.8	110	1.7	
	전체	4,854	75.6	1,566	24.4	

* $p<.05$, ** $p<.01$, *** $p<.001$

○ 음주, 흡연, 니스흡입 등 경험 유무에 따른 비행경험과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결연도($\chi^2=207.565$, $p<.001$)와 사건 발생연도($\chi^2=181.819$,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 흡연, 니스흡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학교징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7.3%(533명), 경험이 있는 경우는 4.4%(320명), 2011년에는 무 7.7%(566명), 유 10.7%(786명), 2012년에는 무 6.2%(453명), 유 12.7%(930명), 2013년에는 무 5.3%(392명), 유 7.3%(538명), 2014년에는 무 5.5%(406명), 유 6.9%(504명), 2015년에는 무 3.8%(278명), 유 4.9%(359명), 2016년에는 무 3.8%(278명), 유 5.1%(374명), 2017년에는 무 3.1%(230명), 유 1.2%(88명), 2018년에는 무 0.9%(67명), 유 1.2%(88명)로 나타남.

- 음주, 흡연, 니스흡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학교징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0.0%(1명), 경험이 있는 경우는 0.0%(0명), 2008년에는 무 0.3%(18명), 유 0.1%(4명), 2009년에는 무 2.9%(187명), 유 1.0%(62명), 2010년에는 무 8.4%(537명), 유 9.0%(575명), 2011년에는 무 1.0%(447명), 유 11.2%(722명), 2012년에는 무 6.3%(405명), 유 11.9%(762명), 2013년에는 무 5.3%(342명), 유 6.4%(412명), 2014년에는 무 4.3%(276명), 유 5.2%(337명), 2015년에는 무 3.2%(205명), 유 4.6%(293명), 2016년에는 무 2.9%(186명), 유 3.6%(231명), 2017년에는 무 7.1%(200명), 유 3.4%(218명)로 나타남.

표 IV-10. 음주, 흡연, 니스흡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533	7.3	320	4.4	$\chi^2=207.565^{***}$
	2011년	566	7.7	786	10.7	
	2012년	453	6.2	930	12.7	
	2013년	392	5.3	538	7.3	
	2014년	406	5.5	504	6.9	
	2015년	194	2.6	359	4.9	
	2016년	278	3.8	374	5.1	
	2017년	230	3.1	315	4.3	
	2018년	67	0.9	88	1.2	
	전체	3,119	42.5	4,214	57.5	
발생연도	2007년	1	0.0	0	0.0	$\chi^2=181.819^{***}$
	2008년	18	0.3	4	0.1	
	2009년	187	2.9	62	1.0	
	2010년	537	8.4	575	9.0	
	2011년	447	1.0	722	11.2	
	2012년	405	6.3	762	11.9	
	2013년	342	5.3	412	6.4	
	2014년	276	4.3	337	5.2	
	2015년	205	3.2	293	4.6	
	2016년	186	2.9	231	3.6	

* $p<.05$, ** $p<.01$, *** $p<.001$

- 게임, 컴퓨터 중독 등 경험 유무에 따른 비행경험과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결 연도($\chi^2=29.849$, $p<.001$)와 사건 발생연도($\chi^2=25.37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게임, 컴퓨터 중독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학교징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11.6%(851명), 경험이 있는 경우는 0.0%(2명), 2011년에는 무 18.3%(1,343명), 유 0.1%(9명), 2012년에는 무 18.7%(1,374명), 유 0.1%(9명), 2013년에는 무 12.6%(922명), 유 0.1%(8명), 2014년에는 무 12.3%(904명), 유 0.1%(6명), 2015년에는 무 7.4%(545명), 유 0.1%(8명), 2016년에는 무 8.7%(635명), 유 0.2%(17명), 2017년에는 무 7.4%(539명), 유 0.1%(6명), 2018년에는 무 2.1%(153명), 유 0.0%(2명)로 나타남.
- 게임, 컴퓨터 중독 유무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학교 징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0.0%(1명), 경험이 있는 경우는 0.0%(0명), 2008년에는

무 0.3%(22명), 유 0.0%(0명), 2009년에는 무 3.9%(248명), 유 0.0%(1명), 2010년에는 무 17.2%(1,106명), 유 0.1%(6명), 2011년에는 무 18.1%(1,161명), 유 0.1%(8명), 2012년에는 무 18.1%(1,161명), 유 0.1%(6명), 2013년에는 무 11.6%(747명), 유 0.1%(7명), 2014년에는 무 9.4%(605명), 유 0.1%(8명), 2015년에는 무 7.6%(487명), 유 0.2%(11명), 2016년에는 무 6.3%(407명), 유 0.2%(10명), 2017년에는 무 6.5%(415명), 유 0.0%(3명)로 나타남.

표 IV-11. 게임, 컴퓨터 중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851	11.6	2	0.0	$\chi^2=29.849^{***}$
	2011년	1,343	18.3	9	0.1	
	2012년	1,374	18.7	9	0.1	
	2013년	922	12.6	8	0.1	
	2014년	904	12.3	6	0.1	
	2015년	545	7.4	8	0.1	
	2016년	635	8.7	17	0.2	
	2017년	539	7.4	6	0.1	
	2018년	153	2.1	2	0.0	
	전체	7,266	99.1	67	0.9	
발생연도	2007년	1	0.0	0	0.0	$\chi^2=25.376^{**}$
	2008년	22	0.3	0	0.0	
	2009년	248	3.9	1	0.0	
	2010년	1,106	17.2	6	0.1	
	2011년	1,161	18.1	8	0.1	
	2012년	1,161	18.1	6	0.1	
	2013년	747	11.6	7	0.1	
	2014년	605	9.4	8	0.1	
	2015년	487	7.6	11	0.2	
	2016년	407	6.3	10	0.2	

* $p<.05$, ** $p<.01$, *** $p<.001$

5) 소년범의 심리적 특성과 범죄현황의 차이

○ 소년범 ADHD 유무에 따른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결연도($\chi^2=93.464$, $p<.001$)와 사건 발생연도($\chi^2=58.79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DHD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사건 발생 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ADHD의 특성을 가진 경우는 0.0%(0명), 가지지 않은 경우는 0.0%(1명), 2008년에는 유 0.0%(0명), 무 0.3%(2명), 2009년에는 유 0.0%(2명), 무 3.8%(24명), 2010년에는 유 0.2%(13명), 무 17.1%(1,099명), 2011년에는 유 0.2%(13명), 무 18.0%(1,156명), 2012년에는 유 0.4%(23명), 무 17.8%(1,144명), 2013년에는 유 0.4%(27명), 무 11.3%(727명), 2014년에는 유 0.4%(26명), 무 9.1%(587명), 2015년에는 유 0.3%(21명), 무 7.4%(477명), 2016년에는 유 0.3%(21명), 무 5.2%(396명), 2017년에는 유 0.3%(21명), 무 6.2%(397명)로 나타남.

표 IV-12. ADHD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843	11.5	10	0.1	$\chi^2=93.464^{***}$
	2011년	1,341	18.3	11	0.2	
	2012년	1,365	18.6	18	0.2	
	2013년	903	12.3	27	0.4	
	2014년	869	11.9	41	0.6	
	2015년	531	7.2	22	0.3	
	2016년	615	8.4	37	0.5	
	2017년	513	7.0	32	0.4	
	2018년	147	2.0	8	0.1	
	전체	7,127	97.2	206	2.8	
발생연도	2007년	1	0.0	0	0.0	$\chi^2=58.793^{***}$
	2008년	22	0.3	0	0.0	
	2009년	247	3.8	2	0.0	
	2010년	1,099	17.1	13	0.2	
	2011년	1,156	18.0	13	0.2	
	2012년	1,144	17.8	23	0.4	
	2013년	727	11.3	27	0.4	
	2014년	587	9.1	26	0.4	
	2015년	477	7.4	21	0.3	
	2016년	396	5.2	21	0.3	

* $p<.05$, ** $p<.01$, *** $p<.001$

- 소년범 품행장애 유무에 따른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연도($\chi^2=22.66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판결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품행장애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품행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11.6%(853명), 가진 경우는 0.0%(0명), 2011년에는 무 18.4%(1,352명), 유 0.0%(0명), 2012년에는 무 18.9%(1,383명), 유 0.0%(0명), 2013년에는 무 12.7%(929명), 유 0.0%(1명), 2014년에는 무 7.5%(553명), 유 0.0%(0명), 2015년에는 무 7.5%(553명), 유 0.0%(0명), 2016년에는 무 8.9%(6,515명), 유 0.0%(1명), 2017년에는 무 7.4%(544명), 유 0.0%(1명), 2018년에는 무 2.1%(155명), 유 0.1%(6명)로 나타남.
- 품행장애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사건 발생 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품행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0.0%(1명), 가진 경우는 0.0%(0명), 2008년에는 무 0.3%(22명), 유 0.0%(0명), 2009년에는 무 3.9%(249명), 유 0.0%(0명), 2010년에는 무 17.3%(1,112명), 유 0.0%(0명), 2011년에는 무 18.2%(1,169명), 유 0.0%(0명), 2012년에는 무 18.2%(1,167명), 유 0.0%(0명), 2013년에는 무 11.7%(751명), 유 0.0%(3명), 2014년에는 무 9.4%(613명), 유 0.0%(0명), 2015년에는 무 7.8%(498명), 유 0.0%(0명), 2016년에는 무 6.5%(418명), 유 0.0%(2명), 2017년에는 무 6.5%(148명), 유 0.1%(5명)로 나타남.

표 IV-13. 품행장애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853	11.6	0	0.0	$\chi^2=11.528$
	2011년	1,352	18.4	0	0.0	
	2012년	1,383	18.9	0	0.0	
	2013년	929	12.7	1	0.0	
	2014년	553	7.5	0	0.0	
	2015년	553	7.5	0	0.0	
	2016년	651	8.9	1	0.0	
	2017년	544	7.4	1	0.0	
	2018년	155	2.1	0	0.0	
	전체	7,327	99.9	6	0.1	
발생연도	2007년	1	0.0	0	0.0	$\chi^2=22.660^*$
	2008년	22	0.3	0	0.0	
	2009년	249	3.9	0	0.0	
	2010년	1,112	17.3	0	0.0	
	2011년	1,169	18.2	0	0.0	
	2012년	1,167	18.2	0	0.0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2013년	751	11.7	3	0.0	
2014년	613	9.4	0	0.0	
2015년	498	7.8	0	0.0	
2016년	415	6.5	2	0.0	

* $p < .05$, ** $p < .01$, *** $p < .001$

○ 소년범 우울증 유무에 따른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건 판결연도($\chi^2=35.985$, $p < .001$), 발생연도($\chi^2=22.446$,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울증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우울증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18.4%(1,347명), 가진 경우는 0.1%(5명), 2011년에는 무 18.8%(1,381명), 유 0.0%(2명), 2012년에는 무 18.8%(1,381명), 유 0.0%(2명), 2013년에는 무 12.7%(928명), 유 0.0%(2명), 2014년에는 무 12.3%(902명), 유 0.1%(8명), 2015년에는 무 7.5%(548명), 유 0.1%(5명), 2016년에는 무 8.7%(640명), 유 0.2%(12명), 2017년에는 무 7.4%(539명), 유 0.1%(6명), 2018년에는 무 2.1%(155명), 유 0.0%(0명)로 나타남.
- 우울증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사건 발생 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에 우울증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0.0%(1명), 가진 경우는 0.0%(0명), 2008년에는 무 0.3%(22명), 유 0.0%(0명), 2009년에는 무 3.9%(249명), 유 0.0%(0명), 2010년에는 무 17.3%(1,108명), 유 0.1%(4명), 2011년에는 무 18.2%(1,167명), 유 0.0%(2명), 2012년에는 무 18.1%(1,164명), 유 0.0%(3명), 2013년에는 무 11.7%(750명), 유 0.1%(4명), 2014년에는 무 9.4%(606명), 유 0.1%(7명), 2015년에는 무 7.6%(490명), 유 0.1%(8명), 2016년에는 무 6.4%(414명), 유 0.0%(3명), 2017년에는 무 6.5%(415명), 유 0.0%(3명)로 나타남.

표 IV-14. 우울증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852	11.6	1	0.0	$\chi^2=35.985^{***}$
	2011년	1,347	18.4	5	0.1	
	2012년	1,381	18.8	2	0.0	
	2013년	928	12.7	2	0.0	
	2014년	902	12.3	8	0.1	
	2015년	548	7.5	5	0.1	
	2016년	640	8.7	12	0.2	
	2017년	539	7.4	6	0.1	
	2018년	155	2.1	0	0.0	
	전체	7,292	99.4	41	0.6	
발생연도	2007년	1	0.0	0	0.0	$\chi^2=22.446^*$
	2008년	22	0.3	0	0.0	
	2009년	249	3.9	0	0.0	
	2010년	1,108	17.3	4	0.1	
	2011년	1,167	18.2	2	0.0	
	2012년	1,164	18.1	3	0.0	
	2013년	750	11.7	4	0.1	
	2014년	606	9.4	7	0.1	
	2015년	490	7.6	8	0.1	
	2016년	414	6.4	3	0.0	

* $p<.05$, ** $p<.01$, *** $p<.001$

○ 소년범 분노조절장애 유무에 따른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건 판결연도($\chi^2=30.67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분노조절장애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학교 징계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 분노조절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11.6%(8,537명), 가진 경우는 0.0%(0명), 2011년에는 무 18.4%(1,351명), 유 0.0%(1명), 2012년에는 무 18.9%(1,383명), 유 0.0%(0명), 2013년에는 무 12.7%(929명), 유 0.0%(1명), 2014년에는 무 12.4%(910명), 유 0.0%(0명), 2015년에는 무 7.5%(552명), 유 0.0%(1명), 2016년에는 무 8.9%(649명), 유 0.0%(3명), 2017년에는 무 7.4%(540명), 유 0.1%(5명), 2018년에는 무 2.1%(154명), 유 0.0%(1명)로 나타남.

표 IV-15. 분노조절의 특성을 가진 소년범 판결 및 발생연도의 차이

구분		무		유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연도	2010년	853	11.6	0	0.0	$\chi^2=30.673^{***}$
	2011년	1,351	18.4	1	0.0	
	2012년	1,383	18.9	0	0.0	
	2013년	929	12.7	1	0.0	
	2014년	910	12.4	0	0.0	
	2015년	552	7.5	1	0.0	
	2016년	649	8.9	3	0.0	
	2017년	540	7.4	5	0.1	
	2018년	154	2.1	1	0.0	
	전체	7,321	99.8	12	0.2	
발생연도	2007년	1	0.0	0	0.0	$\chi^2=17.095$
	2008년	22	0.3	0	0.0	
	2009년	249	3.9	0	0.0	
	2010년	1,111	17.3	1	0.0	
	2011년	1,169	18.2	0	0.0	
	2012년	1,166	18.2	1	0.0	
	2013년	754	11.7	0	0.0	
	2014년	612	9.5	1	0.0	
	2015년	497	7.7	1	0.0	
	2016년	414	6.4	3	0.0	
	2017년	416	6.5	2	0.0	
	전체	6,411	99.9	9	0.1	

* $p<.05$, ** $p<.01$, *** $p<.001$

2. 소년범죄 처분결과 현황 및 특성

1) 소년범죄 처분결과 현황

- 소년범죄 처분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은 86.1%, 기타 3.3%, 처분 없음 0.5%로 나타남.
- 보호처분은 총 6,31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위탁 또는 재위탁으로 세부적인 보호 처분 호수가 확인되지 않는 6.0%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감호위탁 처분인 1호 처분이 69.2%(5,077명)로 가장 많았으며, 소년원 송치 처분이 6.4%(469명)로 나타남. 소년원 송치는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가 2.9%(210명), 장기 소년

원 송치 10호 처분이 3.5%(259명)로 나타남. 다음으로 보호관찰 3.8%(277명)로 나타났으며,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이 3.6%(265명),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0.2%(12명)이었음. 위탁의 경우는 총 0.6%(47명)이었으며, 병원 등의 의료 시설에 위탁하는 7호 처분은 0.6%(44명), 복지 시설 관련 위탁하는 6호 처분은 0.0%(3명)로 나타남.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원은 0.0%(3명)로 나타남.

표 IV-16. 소년범죄 처분결과 현황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보호처분	소계	6,313	86.1
	감호위탁 1호 처분	5,077	69.2
	수강명령 2호 처분	-	-
	사회봉사 3호 처분	3	0.0
	보호관찰	4호 처분(단기)	0.2
		5호 처분(장기)	3.6
	위탁	6호 처분(복지)	0.0
		7호 처분(의료)	0.6
		8호 처분(1개월)	-
	소년원 송치	9호 처분(단기)	2.9
		10호 처분(장기)	3.5
	가위탁/재위탁	440	6.0
기타		245	3.3
처분 없음	소계	530	7.2
	기각, 不	491	6.7
	합의/화해	39	0.5
전체		245	3.3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특성

(1)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차이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는 보호처분 72.7%(3,536명), 처분 없음 5.8%(279명), 기타 2.6%(125명)의 순이었으며, 여자는 보호처분 17.0%(825명), 처분 없음 1.3%(62명), 기타 0.6%(3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7. 성별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차이

구분	남자		여자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보호처분	3,526	72.7	825	17.0	$\chi^2=0.217$
기타	125	2.6	31	0.6	
처분 없음	279	5.8	62	1.3	
전체	3,930	81.1	918	18.9	

* $p<.05$, ** $p<.01$, *** $p<.001$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남자는 1호 처분인 감호위탁이 57.4%(2,785명)로 가장 많았고, 5호 처분인 장기보호관찰 3.7%(179명), 소년원 장기 송치인 10호 처분이 3.4%(165명), 단기 송치 2.4%(117명), 의료시설 위탁보호가 0.5%(22명), 사회봉사명령 0.1%(3명), 복지시설 위탁 0.0%(1명)의 순으로 나타남. 여자는 감호위탁인 1호 처분이 13.7%(665명)로 가장 많았고, 소년원 장기 송치 10호 처분이 0.8%(39명), 단기 송치 9호 처분 0.6%(28명),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 0.5%(23명), 단기 보호관찰 4호 처분 0.2%(9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8.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구분			남자		여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보호처분	소계		3,526	72.7	825	17.0
	감호위탁	1호 처분	2,785	57.4	665	13.7
	수강명령	2호 처분	0	0.0	0	0.0
	사회봉사	3호 처분	3	0.1	0	0.0
	보호관찰	4호 처분(단기)	0	0.0	9	0.2
		5호 처분(장기)	179	3.7	23	0.5
	위탁	6호 처분(복지)	1	0.0	1	0.0
		7호 처분(의료)	22	0.5	11	0.2
	소년원 송치	8호 처분(1개월)	0	0.0	0	0.0
		9호 처분(단기)	117	2.4	28	0.6
		10호 처분(장기)	165	3.4	39	0.8
	가위탁/재위탁		254	5.2	49	1.0
	기타		125	2.6	31	0.6
처분 없음	소계		279	5.8	62	1.3
	기각, 불 합의/화해		254	5.2	62	1.3
			25	0.5	0	0.0
전체			3,930	81.1	918	18.9

(2)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차이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chi^2=56.293$, $p<.001$).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0세에서 13세는 보호처분이 12.3%(870명)로 가장 많았고, 처분 없음 1.8%(130명), 기타 0.2%(22명)의 순이었으며, 14세에서 16세는 보호처분 37.9%(2,684명), 처분 없음 2.7%(209명), 기타 1.4%(125명)의 순으로 나타남. 17세에서 19세는 보호처분 38.7%(2,746명)가 가장 많았고, 처분 없음 2.9%(209명), 기타 1.8%(125명)의 순이었으며, 20세 이상은 보호처분이 0.2%(13명)로 나타남.

표 IV-19.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차이

구분	10세-13세		14세-16세		17세-19세		20세 이상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보호처분	870	12.3	2,684	37.9	2,746	38.7	13	0.2	$\chi^2=56.293$ ***
기타	22	0.3	98	1.4	125	1.8	0	0.0	
처분 없음	130	1.8	191	2.7	209	2.9	0	0.0	
전체	1,022	14.4	2,973	41.9	3,080	43.5	13	0.2	

* $p<.05$, ** $p<.01$, *** $p<.001$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10세에서 13세는 1호 보호처분이 11.8%로 가장 많았고, 9호 소년원 송치 단기 처분 0.1%(4명), 의료 기관 위탁 보호 0.0%(2명), 단기 보호관찰 4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 복지시설 위탁 보호 6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각각 0.0%(1명)로 나타남. 14에서 16세는 감호 위탁이 1호 처분이 30.7%(2,175명)로 가장 많았고,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이 1.6%(113명),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이 1.5%(104명),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1.1%(80명), 의료기관 위탁 보호 7호 처분 0.4%(25명), 단기 보호관찰 처분 0.1%(8명)의 순으로 나타남. 17세에서 19세는 감호 위탁 1호 처분이 29.1%(2,0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이 2.3%(160명), 장기 소년원 송치 2.0%(144명),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1.7%(122명), 의료 보호 7호 처분 0.2%(17명), 단기 보호관찰 4호처분과 사회 봉사명령 3호 처분은 각각 0.0%(3명)이었으며, 복지시설 위탁 보호 6호처분

0.0%(1명)의 순으로 나타남. 20세 이상 소년범은 감호위탁의 1호 처분은 0.1%(6명)였으며,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0.1%(4명),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0.0%(1명)로 나타남.

표 IV-20.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구분			10세-13세		14세-16세		17세-19세		20세 이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보호 처분	소계		870	12.3	2,684	37.9	2,746	38.7	13	0.2	
	감호위탁	1호 처분	833	11.8	2,175	30.7	2,063	29.1	6	0.1	
	수강명령	2호 처분	0	0.0	0	0.0	0	0.0	0	0.0	
	사회봉사	3호 처분	0	0.0	0	0.0	3	0.0	0	0.0	
	보호관찰	4호 처분(단기)	1	0.0	8	0.1	3	0.0	0	0.0	
		5호 처분(장기)	1	0.0	104	1.5	160	2.3	0	0.0	
	위탁	6호 처분(복지)	1	0.0	1	0.0	1	0.0	0	0.0	
		7호 처분(의료)	2	0.0	25	0.4	17	0.2	0	0.0	
	소년원 송치	8호 처분(1개월)	0	0.0	0	0.0	0	0.0	0	0.0	
		9호 처분(단기)	4	0.1	80	1.1	122	1.7	4	0.1	
		10호 처분(장기)	1	0.0	113	1.6	144	2.0	1	0.0	
	가위탁/재위탁		27	0.4	178	2.5	233	3.3	2	0.0	
	기타		22	0.3	98	1.4	125	1.8	0	0.0	
처분 없음			소계	130	0	191	0	209	0	0	
			기각, 불응	123	1.7	176	2.5	192	2.7	0	0.0
			합의/화해	7	0.1	15	0.2	17	0.2	0	0.0
전체			1,022	14.4	2,973	41.9	3,080	43.5	13	0.2	

(3)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차이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학력에 따른 소년범 처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고교 재학중 소년범은 보호처분 1.2%(26명), 처분 없음 0.1%(2명)이었으며, 중/고교 졸업 소년범은 보호처분 12.5%(273명), 처분 없음 0.5%(11명), 기타 0.5%(10명)의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 학업중단 보호처분 67.8%(1479명), 처분 없음 2.7%(58명), 기타 2.3%(51명)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학력의 소년범은 보호처분 11.7%(255명), 처분 없음 또는 기타 처분은 각각 0.4%(8명)로 나타남.

표 IV-21. 학력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차이

구분	중/고교재학중		중/고교졸업		중/고교학업중단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보호처분	26	1.2	273	12.5	1,479	67.8	255	11.7	$\chi^2=$ 2.326***
기타	0	0.0	10	0.5	51	2.3	8	0.4	
처분 없음	2	0.1	11	0.5	58	2.7	8	0.4	
전체	28	1.3	294	13.5	1,588	72.8	271	12.4	

* $p<.05$, ** $p<.01$, *** $p<.001$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중/고교 재학중 1호 처분은 0.9%(19명),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0.1%(3명),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 0.0%(1명)이었으며, 중/고교 졸업한 소년범은 감호 위탁 1호 처분은 10.2%(223명),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 0.7%(15명),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0.5%(10명), 장기 소년원 송치 0.1%(3명), 의료 시설 위탁 보호 0.1%(2명)의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 학업중단 소년원의 감호위탁 1호 처분이 45.3%(987명)로 가장 많았고, 장기 소년원 송치 6.1%(133명), 장기 보호관찰 5.1%(111명),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4.6%(101명), 의료시설 위탁 보호 0.6%(13명), 단기 보호관찰 4호 처분, 0.3%(6명)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학력의 경우 감호 위탁 1호 처분은 8.3%(181명)이었으며,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과,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이 각각 0.9%(19명)이었으며,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0.6%(14명), 의료 위탁 보호 0.1%(3명), 사회봉사명령 3호 처분 0.0%(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2.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구분			중/고교재학중		중/고교졸업		중/고교학업중단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보호 처분	소계		26	1.2	273	12.5	1,479	67.8	255	11.7
	감호위탁	1호 처분	19	0.9	223	10.2	987	45.3	181	8.3
	수강명령	2호 처분	0	0.0	0	0.0	0	0.0	0	0.0
	사회봉사	3호 처분	0	0.0	0	0.0	1	0.0	1	0.0
	보호관찰	4호 처분(단기)	0	0.0	0	0.0	6	0.3	0	0.0
		5호 처분(장기)	1	0.0	15	0.7	111	5.1	19	0.9
	위탁	6호 처분(복지)	0	0.0	0	0.0	2	0.1	0	0.0
		7호 처분(의료)	0	0.0	2	0.1	13	0.6	3	0.1

구분			중/고교재학중		중/고교졸업		중/고교학업중단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소년원 송치	8호 처분(1개월)	0	0.0	0	0.0	0	0.0	0	0.0
		9호 처분(단기)	0	0.0	10	0.5	101	4.6	14	0.6
		10호 처분(장기)	3	0.1	3	0.1	133	6.1	19	0.9
	가위탁/재위탁		3	0.1	20	0.9	125	5.7	18	0.8
	기타		0	0.0	10	0.5	51	2.3	8	0.4
처분 없음	소계		2	0.1	11	0.5	58	2.7	8	0.4
	기각, 不		2	0.1	7	0.3	56	2.6	6	0.3
	합의 /화해		0	0.0	4	0.2	2	0.1	2	0.1
	전체		28	1.3	294	13.5	1,588	72.8	271	12.4

(4) 가족특성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차이

- 가족특성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구성($\chi^2=17.369$, $p<.01$)과 부모이혼($\chi^2=14.696$, $p<.01$)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특성에 따른 소년범죄 처분결과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친부모 가정은 보호처분이 56.1%(3,591명)로 가장 많았으며, 처분 없음 3.7%(234명), 기타 1.6%(102명)의 순이었으며, 재혼가정의 경우 보호처분이 10.8%(689명)이었으며, 처분 없음 0.3%(22명), 기타 0.3%(20명)의 순으로 나타남. 한부모가정 소년범은 보호처분이 23.8%(1,523명), 처분 없음 1.1%(69명), 기타 0.6%(36명)의 순이었으며, 기타 가족구성 소년범은 보호 처분 1.6%(105명), 처분 없음 0.1%(7명), 기타 처분 0.1%(5명)의 순이었음.

표 IV-23.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차이

구분	친부모가정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보호처분	3,591	56.1	689	10.8	1,523	23.8	105	1.6	$\chi^2=17.369^{**}$
기타	102	1.6	20	0.3	36	0.6	5	0.1	
처분 없음	234	3.7	22	0.3	69	1.1	7	0.1	
전체	3,927	61.3	731	11.4	1,628	25.4	117	1.8	

* $p<.05$, ** $p<.01$, *** $p<.001$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이혼을 경험한 소년범은 보호처분이 35.6%(2,200명)이었으며,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소년범은 57.7%(3,667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IV-24.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 처분결과 차이

구분	이혼		비이혼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보호처분	2,200	34.6	3,667	57.7	$\chi^2=14.696^{**}$
기타	59	0.9	105	1.7	
처분 없음	88	1.4	238	3.7	
전체	2,347	36.9	4,010	63.1	

* $p<.05$, ** $p<.01$, *** $p<.001$



제5장 소년범죄 범행특성

- 1.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 특성
- 2. 소년범죄 단독범 및 공범 특성
- 3. 소년범의 재범 특성

1.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 특성

1)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 현황

- 소년범죄 유형은 재산범죄 > 강력범죄(폭력) > 기타 > 강력범죄(흉악) > 교통범죄 순이었으며, 평균 1.88건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1건 이상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32.7%이었음.
- 소년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재산범죄 37.6%(2,759건), 강력범죄(흉악) 11.7%(861건), 강력범죄(폭력)는 26.0%(1,907건), 교통범죄 8.8%(642건), 그리고 기타는 15.8%(1,158건)로 나타남.

표 V-1.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재산범죄	2,759	37.6
강력범죄(흉악)	861	11.7
강력범죄(폭력)	1,907	26.0
교통범죄	642	8.8
기타	1,158	15.8
결측	6	0.1

* 이 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심혜인 교수(영산대학교 경찰행정전공)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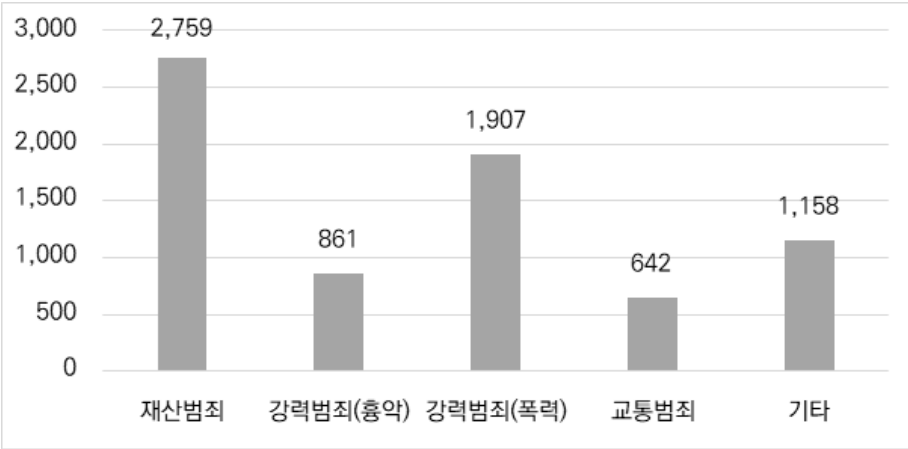


그림 V-1.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 소년범 범죄 사건 횟수를 살펴보면 1건인 경우가 64.8%(4,751명)로 가장 많고, 2건인 경우가 15.0%(1,103명), 5건 이상인 경우 7.1%(517명), 3건인 경우 6.8%(501명), 4건은 3.8%(280명)의 순으로 최소값 1, 최대값 33, 평균값 1.88, 표준편차 1.98이었음.

표 V-2. 소년범 범죄 사건 횟수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1건	4,751	64.8
2건	1,103	15.0
3건	501	6.8
4건	280	3.8
5건 이상	517	7.1
결측	181	2.5
전체	min=1, max=33(M=1.88, SD=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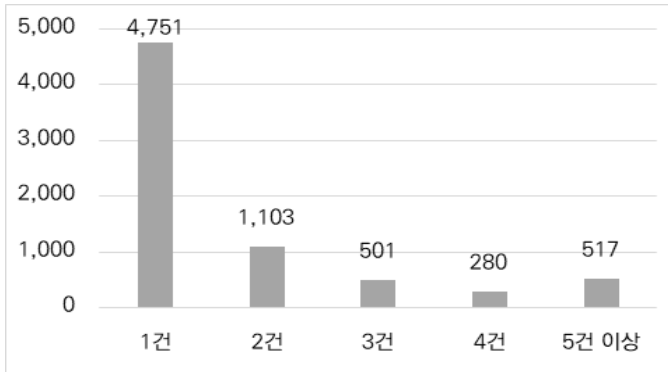


그림 V-2. 소년범죄 사건 횟수

2) 소년법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 유형 및 사건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범죄 유형 및 사건의 차이

- 성별에 따른 소년법 범죄 유형 및 사건 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범죄 유형이($\chi^2=273.986$,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횟수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남자 소년범은 재산범죄 > 강력범죄(폭력) > 기타 > 강력범죄(흉악) > 교통범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소년범은 강력범죄(폭력) > 재산범죄 > 기타 > 강력범죄(흉악) > 교통범죄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소년법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는 재산범죄인 경우가 3.1%(1,557건)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8.7%(940건), 기타인 경우 11.9%(596건), 강력범죄(흉악)인 경우가 10.6%(534건), 교통범죄인 경우가 남자 8.7%(435건)의 순으로 나타남. 여자는 강력범죄(폭력)인 경우 7.7%(386건)로 가장 높았고, 재산범죄인 경우가 5.5%(278건), 기타인 경우 4.6%(233건), 강력범죄(흉악)인 경우 1.2%(59건), 교통범죄인 경우 0.1%(4건)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횟수를 살펴보면 남자는 1건이 53.7%(2,627명)로 가장 많고, 2건인 경우가 12.7%(623명), 3건인 경우 5.4%(265명), 4건인 경우 3.4%(166명), 5건 이상인 경우 3.2%(304명)의 순으로 나타남. 여자는 1건이 12.6%(617명)로 가장 많고, 2건인 경우가 2.8%(137명), 5건 이상인 경우 여자 1.3%(64명), 3건인 경우 1.2%(58명), 4건인 경우 0.7%(33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3. 성별에 따른 소년범 유형 및 사건 횟수의 차이

구분		남자		여자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죄명	재산범죄	1,557	31.0	278	5.5	$\chi^2=273.986^{***}$
	강력범죄(홍악)	534	10.6	59	1.2	
	강력범죄(폭력)	940	18.7	386	7.7	
	교통범죄	435	8.7	4	0.1	
	기타	596	11.9	233	4.6	
	전체	4,062	80.9	960	19.1	
사건 횟수	1건	2,627	53.7	617	12.6	$\chi^2=1.520$
	2건	623	12.7	137	2.8	
	3건	265	5.4	58	1.2	
	4건	166	3.4	33	0.7	
	5건 이상	304	3.2	64	1.3	
	전체	3,985	81.4	909	18.6	

* $p<.05$, ** $p<.01$, *** $p<.001$

(2) 연령에 따른 범죄 유형 및 사건의 차이

- 연령에 따른 소년범 범죄 유형 및 사건 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범죄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건 횟수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chi^2=101.991$, $p<.001$). 1건의 사건을 한 소년범의 연령은 17세-19세가 가장 많았으며, 2건의 사건이 발생한 소년범은 14세-16세, 17세-19세가 각각 6.7%였으며, 3건의 사건이 발생한 소년범은 14세-16세 3.4%, 4건이 발생한 소년범은 14세-16세, 5건 이상 사건이 발생한 소년범은 14세-16세로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3건 이상의 사건 횟수의 비율은 14세에서 16세의 연령 분포가 가장 많았음.
- 연령에 따른 소년범 유형을 살펴보면 10세-13세는 재산범죄인 경우가 6.8%(500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3.8%(281명), 강력범죄(홍악)인 경우 2.0%(147명), 기타인 경우 1.4%(101명), 교통범죄인 경우 0.2%(16명)의 순으로 나타남. 14세-16세는 재산범죄인 경우가 16.4%(1,203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11.9%(870명), 기타인 경우가 5.9%(433명), 강력범죄(홍악)인 경우가 4.8%(350명), 교통범죄인 경우가 2.9%(212명)의 순으로 나타남. 17세-19세는 재산범죄인 경우가 14.4%(1,056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10.3%(755명), 기타인 경우 8.3%(610명), 교통범죄인 경우 5.7%(414명), 강력범죄

죄(홍악)인 경우 5.0%(364명)의 순으로 나타남. 20세 이상은 기타인 경우가 0.1%(14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0.0%(1명) 재산범죄인 경우 0.0%(0명), 강력범죄(홍악)인 경우 0.0%(0명), 교통범죄인 경우 0.0%(0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횟수를 살펴보면 1건은 10세-13세는 10.6%(759명), 14세-16세는 25.6%(1,831명), 17세-19세는 30.0%(2,149명), 20세 이상은 0.2%(12명), 2건은 10세-13세는 2.0%(143명), 14세-16세는 6.7%(480명), 17세-19세는 6.7%(480명), 20세 이상은 0.0%(0명), 3건은 10세-13세는 0.7%(52명), 14세-16세는 11.9%(870명), 17세-19세는 10.3%(755명), 20세 이상은 0.0%(1명), 4건은 10세-13세는 0.2%(16명), 14세-16세는 2.9%(212명), 17세-19세는 5.7%(414명), 20세 이상은 0.0%(0명), 5건 이상은 10세-13세는 1.4%(101명), 14세-16세는 5.9%(433명), 17세-19세는 8.3%(610명), 20세 이상은 0.1%(14명)로 나타남.

표 V-4. 연령에 따른 소년범 유형 및 사건 횟수의 차이

구분		10세-13세		14세-16세		17세-19세		20세 이상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죄명	재산 범죄	500	6.8	1,203	16.4	1,056	14.4	0	0.0	$\chi^2=326.629$
	강력 범죄 (홍악)	147	2.0	350	4.8	364	5.0	0	0.0	
	강력 범죄 (폭력)	281	3.8	870	11.9	755	10.3	1	0.0	
	교통 범죄	16	0.2	212	2.9	414	5.7	0	0.0	
	기타	101	1.4	433	5.9	610	8.3	14	0.2	
	전체	1,045	14.3	3,068	41.9	3,199	43.7	15	0.2	
사건 횟수	1건	759	10.6	1,831	25.6	2,149	30.0	12	0.2	$\chi^2=101.991$ ***
	2건	143	2.0	480	6.7	480	6.7	0	0.0	
	3건	52	0.7	243	3.4	204	2.9	2	0.0	
	4건	30	0.4	146	2.0	103	1.4	1	0.0	
	5건 이상	42	0.6	290	4.1	185	2.6	0	0.0	
	전체	1,026	14.3	2,990	41.8	3,121	43.6	15	0.2	

* $p<.05$, ** $p<.01$, *** $p<.001$

(3) 학력에 따른 범죄 유형 및 사건의 차이

○ 학력에 따라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중/고교재학중은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0.5%(12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인 경우가 0.3%(7명), 기타인 경우 0.2%(5명), 강력범죄(홍악)인 경우 0.1%(3명), 교통범죄인 경우 0.1%(2명)의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졸업은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4.2%(9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인 경우가 3.1%(69명), 기타인 경우가 2.4%(54명), 강력범죄(폭력)인 경우 1.8%(41명), 기타인 경우 1.8%(41명)의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학업중단은 재산범죄인 경우가 28.7%(649명)로 가장 많았고, 기타인 경우가 15.9%(359명), 강력범죄(폭력)인 경우 14.7%(333명), 교통범죄인 경우 7.7%(174명), 강력범죄(홍악)인 경우 6.0%(136명)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재산범죄인 경우가 47.1%(92명)로 가장 많았고, 기타인 경우가 2.3%(52명), 강력범죄(폭력)인 경우 1.8%(41명), 교통범죄인 경우 1.1%(26명)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횟수를 살펴보면 중/고교재학중은 1건인 경우가 0.9%(19명)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인 경우가 0.2%(5명), 2건인 경우 0.1%(2명), 4건인 경우 0.1%(2명), 3건인 경우 0.0%(1명)의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졸업은 1건인 경우가 9.3%(206명)로 가장 많았고, 2건인 경우가 2.0%(45명), 5건이상인 경우가 1.0%(23명), 3건인 경우가 0.5%(12명), 4건인 경우가 0.5%(12명)의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학업중단은 1건인 경우가 44.1%(981명)로 가장 많았고, 2건인 경우가 11.1%(248명), 5건이상인 경우 8.7%(194명), 3건인 경우 5.7%(126명), 4건인 경우 3.3%(74명)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1건인 경우가 8.1%(180명)로 가장 많았고, 2건인 경우가 1.9%(42명), 3건인 경우 1.2%(26명), 5건이상인 경우 0.7%(16명), 4건인 경우 0.5%(1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5.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 횟수의 차이

구분		중/고교재학중		중/고교졸업		중/고교학업중단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죄명	재산 범죄	7	0.3	69	3.1	649	28.7	92	4.1	$\chi^2=62.410$
	강력 범죄 (홍악)	3	0.1	41	1.8	136	6.0	41	1.8	
	강력 범죄 (폭력)	12	0.5	94	4.2	333	14.7	71	3.1	
	교통 범죄	2	0.1	41	1.8	174	7.7	26	1.1	
	기타	5	0.2	54	2.4	359	15.9	52	2.3	
	전체	29	1.3	299	13.2	1,651	73.0	282	12.5	
사건 횟수	1건	19	0.9	206	9.3	981	44.1	180	8.1	$\chi^2=24.804$
	2건	2	0.1	45	2.0	248	11.1	42	1.9	
	3건	1	0.0	12	0.5	126	5.7	26	1.2	
	4건	2	0.1	12	0.5	74	3.3	11	0.5	
	5건이상	5	0.2	23	1.0	194	8.7	16	0.7	
	전체	29	1.3	298	13.4	1,623	72.9	275	12.4	

* $p<.05$, ** $p<.01$, *** $p<.001$

(4) 가족특성에 따른 범죄 유형 및 사건의 차이

- 가족구성에 따른 범죄 유형 및 사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구성에 따라 범죄 유형($\chi^2=101.991$ $p<.001$)과 사건 횟수($\chi^2=101.991$, $p<.00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친부모가정, 재혼가정은 재산범죄 > 강력범죄(폭력) > 강력범죄(홍악) > 기타 > 교통범죄의 순으로 많았으며, 한부모가정은 재산범죄 > 강력범죄(폭력) > 기타 > 강력범죄(홍악) > 교통범죄의 순으로 많았음. 사건횟수는 친부모가정과 재혼가정은 5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소년범이 3건과 4건 사건 발생 소년범의 비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 횟수를 분석한 결과, 범죄유형($\chi^2=56.425$, $p<.001$)과 사건 횟수($\chi^2=29.96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정은 재산범죄가 22.5%(1,472명)로 가장 많았고,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17.7%(1,157명), 강력범죄(홍악)인 경우 8.1%(528명), 기타인 경우 7.4%(485명), 교통범죄인 경우 5.7%(372명)의 순으로 나타남. 재혼가정은 재산범죄가 4.5%(293명)로 가장 많았고,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2.8%(181명), 기타인 경우 2.2%(141명), 강력범죄(홍악)인 경우 1.3%(85명), 교통범죄인 경우 0.9%(58명)의 순으로 나타남. 한부모가정은 재산범죄가

10.0%(653명)로 가장 많았고,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6.1%(401명), 기타인 경우 4.4%(291명), 강력범죄(홍약)인 경우 2.7%(175명), 교통범죄인 경우 2.2%(143명)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재산범죄가 0.7%(49명)로 가장 많았고, 기타인 경우가 0.4%(27명), 강력범죄(폭력)인 경우 0.3%(17명), 강력범죄(홍약)인 경우 0.2%(14명), 교통범죄인 경우 0.2%(11명)의 순으로 나타남.

-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사건 횟수를 살펴보면 친부모 가정은 1건인 경우가 41.7%(2,691명)로 가장 많았고, 2건인 경우가 9.6%(620명), 3건인 경우 4.0%(259명), 5건이상인 경우 3.8%(244명), 4건인 경우 2.3%(147명)의 순으로 나타남. 재혼 가정은 1건인 경우가 7.0%(451명)로 가장 많았고, 2건인 경우가 2.1%(134명), 5건 이상인 경우 1.2%(79명), 3건인 경우 0.7%(46명), 4건인 경우 0.6%(36명)의 순으로 나타남. 한부모가정은 1건인 경우가 16.3%(1,050명)로 가장 많았고, 2건인 경우가 3.6%(233명), 3건인 경우 2.2%(141명), 5건이상인 경우 2.2%(140명), 4건인 경우 1.0%(66명)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1건인 경우가 0.9%(61명)로 가장 많았고, 2건인 경우가 0.3%(22명), 5건이상인 경우가 0.2%(14명), 4건인 경우가 0.2%(11명), 3건인 경우가 0.2%(10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6.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 유형 및 사건 횟수의 차이

구분		친부모가정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죄명	재산 범죄	1,472	22.5	293	4.5	653	10.0	49	0.7	$\chi^2=73.407$ ***
	강력 범죄 (홍약)	528	8.1	85	1.3	175	2.7	14	0.2	
	강력 범죄 (폭력)	1,157	17.7	181	2.8	401	6.1	17	0.3	
	교통 범죄	372	5.7	58	0.9	143	2.2	11	0.2	
	기타	485	7.4	141	2.2	291	4.4	27	0.4	
	전체	4,014	61.3	758	11.6	1,663	25.4	118	1.8	
사건 횟수	1건	2,691	41.7	451	7.0	1,050	16.3	61	0.9	$\chi^2=58.880$ ***
	2건	620	9.6	134	2.1	233	3.6	22	0.3	
	3건	259	4.0	46	0.7	141	2.2	10	0.2	
	4건	147	2.3	36	0.6	66	1.0	11	0.2	
	5건이상	244	3.8	79	1.2	140	2.2	14	0.2	
	전체	3,961	61.4	746	11.6	1,630	25.3	118	1.8	

* $p<.05$, ** $p<.01$, *** $p<.001$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유형을 살펴보면 이혼가정은 재산범죄가 14.4%(937명)로 가장 많았고,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8.9%(579명), 기타인 경우 6.6%(431명), 강력범죄(흉악)인 경우 4.0%(262명), 교통범죄인 경우 3.1%(201명)의 순으로 나타남. 비이혼가정은 재산범죄가 23.2%(1,511명), 강력범죄(폭력)인 경우가 18.0%(1,173명), 강력범죄(흉악)인 경우 8.3%(538명), 기타인 경우 7.6%(497명), 교통범죄인 경우 5.8%(378명)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사건 횟수를 살펴보면 이혼가정은 1건인 경우가 23.1%(1,483명)로 가장 많았고, 2건인 경우가 5.8%(369명), 5건이상인 경우가 3.4%(221명), 3건인 경우 2.9%(187명), 4건인 경우 1.6%(104명)의 순으로 나타남. 비이혼가정은 1건인 경우가 42.7%(2,737명)로 가장 많았고, 2건인 경우가 9.9%(634명), 3건인 경우 4.1%(264명), 5건이상인 경우 3.9%(253명), 4건인 경우 2.4%(156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7.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유형의 차이

구분		이혼		비이혼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죄명	재산범죄	937	14.4	1,511	23.2	$\chi^2=56.425^{***}$
	강력범죄(흉악)	262	4.0	538	8.3	
	강력범죄(폭력)	579	8.9	1,173	18.0	
	교통범죄	201	3.1	378	5.8	
	기타	431	6.6	497	7.6	
	전체	2,410	37.0	4,097	63.0	
사건 횟수	1건	1,483	23.1	2,737	42.7	$\chi^2=29.966^{***}$
	2건	369	5.8	634	9.9	
	3건	187	2.9	264	4.1	
	4건	104	1.6	156	2.4	
	5건이상	221	3.4	253	3.9	
	전체	2,361	36.9	4,044	63.1	

* $p<.05$, ** $p<.01$, *** $p<.001$

3) 소년범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

(1)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판결 및 발생 현황의 차이

○ 범죄유형에 따라 판결연도 및 발생연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판결연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는 2011년에 7.5%(546명)로 가장 많고, 2012년에 6.9%(503명), 2013년 4.8%(350명), 2014년 4.6%(336명), 2010년 4.4%(321명), 2016년 3.3%(243명), 2015년 3.3%(241명), 2017년 2.3%(170명), 2018년 0.7%(49명) 순으로 나타남. 강력범죄(흉악)는 2014년에 2.4%(176명)로 가장 많고, 2013년에 1.8%(133명), 2017년 1.6%(118명), 2011년 1.5%(113명), 2016년 1.3%(96명), 2012년 1.1%(79명), 2015년 0.9%(64명), 2010년 0.8%(58명), 2018년 0.3%(24명) 순으로 나타남. 강력범죄(폭력)는 2012년에 6.6%(482명)로 가장 많고, 2011년에 5.1%(373명), 2013년 3.5%(259명), 2010년 3.2%(232명), 2014년 2.7%(198명), 2016년 1.8%(134명), 2015년 1.3%(96명), 2017년 1.3%(92명), 2018년 0.6%(41명) 순으로 나타남. 교통범죄는 2011년에 1.8%(131명)로 가장 많고, 2012년에 1.3%(130명), 2010년 1.6%(119명), 2013년 0.8%(61명), 2014년 0.8%(55명), 2015년 0.7%(52명), 2017년 0.6%(41명), 2016년 0.5%(36명), 2018년 0.2%(17명)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2011년에 2.6%(189명)로 가장 많고, 2012년에 2.6%(188명), 2014년 2.0%(145명), 2016년 2.0%(143명), 2013년 1.7%(127명), 2010년과 2017년 각 1.7%(122명), 2015년 1.3%(98명), 2018년 0.3%(24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는 2007년 0.0%(0명), 2008년 0.2%(10명), 2009년 1.7%(109명), 2010년 7.2%(465명), 2011년 7.0%(449명), 2012년 7.9%(506명), 2013년 4.5%(288명), 2014년 4.3%(275명), 2015년 3.5%(225명), 2016년 2.6%(168명), 2017년 2.5%(162명)로 나타남. 강력범죄(흉악)는 2007년 0.0%(1명), 2008년 0.0%(2명), 2009년 0.3%(21명), 2010년 1.3%(85명), 2011년 1.7%(112명), 2012년 1.9%(124명), 2013년 2.2%(139명), 2014년 1.7%(111명), 2015년 1.2%(76명), 2016년 1.3%(82명), 2017년 1.4%(91명)로 나타남. 강력범죄(폭력)는 2007년 0.0%(0명), 2008년 0.1%(7명), 2009년 1.2%(77명), 2010년 5.3%(342명), 2011년 6.6%(424명), 2012년 5.0%(323명),

2013년 3.3%(214명), 2014년 2.1%(135명), 2015년 1.6%(101명), 2016년 1.4%(90명), 2017년 1.4%(92명)로 나타남. 교통범죄는 2007년 0.0%(0명), 2008년 0.0%(0명), 2009년 0.5%(30명), 2010년 2.1%(137명), 2011년 1.8%(117명), 2012년 1.9%(122명), 2013년 0.7%(46명), 2014년 0.8%(54명), 2015년 0.7%(46명), 2016년 0.4%(27명), 2017년 0.8%(49명)로 나타남. 기타는 2007년 0.0%(0명), 2008년 0.0%(3명), 2009년 0.2%(12명), 2010년 1.3%(82명), 2011년 1.0%(66명), 2012년 1.4%(92명), 2013년 1.0%(67명), 2014년 0.6%(38명), 2015년 0.8%(49명), 2016년 0.8%(50명), 2017년 0.4%(23명)로 나타남.

표 V-8.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판결 연도 차이

구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약)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판결 연도	2010년	321	4.4	58	0.8	232	3.2	119	1.6	122	1.7	$\chi^2=$ 377.905
	2011년	546	7.5	113	1.5	373	5.1	131	1.8	189	2.6	
	2012년	503	6.9	79	1.1	482	6.6	130	1.8	188	2.6	
	2013년	350	4.8	133	1.8	259	3.5	61	0.8	127	1.7	
	2014년	336	4.6	176	2.4	198	2.7	55	0.8	145	2.0	
	2015년	241	3.3	64	0.9	96	1.3	52	0.7	98	1.3	
	2016년	243	3.3	96	1.3	134	1.8	36	0.5	143	2.0	
	2017년	170	2.3	118	1.6	92	1.3	41	0.6	122	1.7	
	2018년	49	0.7	24	0.3	41	0.6	17	0.2	24	0.3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사건 발생 연도	2007년	0	0.0	1	0.0	0	0.0	0	0.0	0	0.0	$\chi^2=$ 250.734
	2008년	10	0.2	2	0.0	7	0.1	0	0.0	3	0.0	
	2009년	109	1.7	21	0.3	77	1.2	30	0.5	12	0.2	
	2010년	465	7.2	85	1.3	342	5.3	137	2.1	82	1.3	
	2011년	449	7.0	112	1.7	424	6.6	117	1.8	66	1.0	
	2012년	506	7.9	124	1.9	323	5.0	122	1.9	92	1.4	
	2013년	288	4.5	139	2.2	214	3.3	46	0.7	67	1.0	
	2014년	275	4.3	111	1.7	135	2.1	54	0.8	38	0.6	
	2015년	225	3.5	76	1.2	101	1.6	46	0.7	49	0.8	
	2016년	168	2.6	82	1.3	90	1.4	27	0.4	50	0.8	

* $p<.05$, ** $p<.01$, *** $p<.001$

(2)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건 발생 수의 차이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건 발생 수를 살펴보면 재산범죄는 1건이 22.1%(1,576명)로 가장 많고 2건이 7.2%(514명), 5건 이상이 3.8%(273명), 3건 3.3%(233명),

4건 2.0%(142명) 순으로 나타남. 강력범죄(홍악)는 1건이 7.4%(527명)로 가장 많고 2건이 1.9%(135명), 3건이 1.3%(95명), 5건 이상 0.8%(59명), 4건 0.6%(44명) 순으로 나타남. 강력범죄(폭력)는 1건이 17.0%(1,217명)로 가장 많고 2건이 4.5%(320명), 5건 이상이 1.8%(129명), 3건 1.7%(124명), 4건 1.0%(71명) 순으로 나타남. 교통범죄는 1건이 7.6%(546명)로 가장 많고 2건이 0.7%(52명), 3건이 0.3%(19명), 5건 이상 0.2%(14명), 4건 0.1%(6명)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1건이 12.4%(883명)로 가장 많고 2건이 1.1%(80명), 5건 이상이 0.6%(42명), 3건 0.4%(29명), 4건 0.2%(17명) 순으로 나타남.

표 V-9.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건발생 수 차이

구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1건	1,576	22.1	527	7.4	1,217	17.0	546	7.6	883	12.4	$\chi^2=388.335$
2건	514	7.2	135	1.9	320	4.5	52	0.7	80	1.1	
3건	233	3.3	95	1.3	124	1.7	19	0.3	29	0.4	
4건	142	2.0	44	0.6	71	1.0	6	0.1	17	0.2	
5건 이상	273	3.8	59	0.8	129	1.8	14	0.2	42	0.6	
전체	2,738	38.3	860	12.0	1,861	26.0	637	8.9	1,051	14.7	

* $p<.05$, ** $p<.01$, *** $p<.001$

(3)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회인구사학적 특성의 차이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재산범죄가 31.0%(1,557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8.7%(940명), 기타 11.9%(596명), 강력범죄(홍악) 10.6%(534명), 교통범죄 8.7%(435명) 순으로 나타남. 여자는 강력범죄(폭력)가 7.7%(386명)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가 5.5%(278명), 기타 4.6%(233명), 강력범죄(홍악) 1.2%(59명), 교통범죄 0.1%(4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을 살펴보면 10-13세는 재산범죄가 6.8%(500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3.8%(281명), 강력범죄(홍악) 2.0%(147명), 기타 1.4%(101명), 교통범죄 0.2%(16명) 순으로 나타남. 14-16세는 재산범죄가 16.4%(1,203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1.9%(870명), 기타 5.9%(433명), 강력범죄(홍악) 4.8%(350명), 교통범죄 2.9%(212명) 순으로 나타남. 17-19세는 재산범죄가 14.4%(1,056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0.3%(755명)

명), 기타 8.3%(610명), 교통범죄 5.7%(414명), 강력범죄(홍악) 5.0%(364명) 순으로 나타남. 20세 이상은 기타가 0.2%(14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0.0%(1명),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교통범죄는 각 0.0%(0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학력을 살펴보면 중/고교 재학중인 경우는 강력범죄(폭력)가 0.5%(12명)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가 0.3%(7명), 기타 0.2%(5명), 강력범죄(홍악) 0.1%(3명), 교통범죄 0.1%(2명)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 졸업은 강력범죄(폭력)가 4.2%(94명)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가 3.1%(69명), 기타 2.4%(54명), 강력범죄(홍악), 교통범죄가 각 1.8%(41명)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 학업 중단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28.7%(649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15.9%(359명), 강력범죄(폭력) 14.7%(333명), 교통범죄 7.7%(174명), 강력범죄(홍악) 6.0%(136명) 순으로 나타남. 기타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4.1%(92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3.1%(71명), 기타 2.3%(52명), 강력범죄(홍악) 1.8%(41명), 교통범죄 1.1%(26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친부모 가정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22.5%(1,472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7.7%(1,157명), 강력범죄(홍악) 8.1%(528명), 기타 7.4%(485명), 교통범죄 5.7%(372명) 순으로 나타남. 재혼가정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4.5%(293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8%(181명), 기타 2.2%(141명), 강력범죄(홍악) 1.3%(85명), 교통범죄 0.9%(58명) 순으로 나타남.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10.0%(653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 6.1%(401명), 기타 4.4%(291명), 강력범죄(홍악) 2.7%(175명), 교통범죄 2.2%(143명) 순으로 나타남. 기타 가정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0.7%(49명)로 가장 많고, 기타 0.4%(27명), 강력범죄(폭력) 0.3%(17명), 강력범죄(홍악) 0.2%(17명), 교통범죄 0.2%(11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부모이혼을 살펴보면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는 재산범죄가 14.4%(937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8.9%(579명), 기타가 6.6%(431명), 강력범죄(홍악) 4.0%(262명), 교통범죄 3.1%(201명) 순으로 나타남.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재산범죄가 23.2%(1,511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8.0%(1,173명), 강력범죄(홍악) 8.3%(538명), 기타 7.6%(497명), 교통범죄 5.8%(378명) 순으로 나타남.

표 V-10.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구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약)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557	31.0	534	10.6	940	18.7	435	8.7	596	11.9	$\chi^2=$ 273.986 ***
	여자	278	5.5	59	1.2	386	7.7	4	0.1	233	4.6	
	전체	1,835	36.5	593	11.8	1,326	26.4	439	8.7	829	16.5	
연령	10세-13세	500	6.8	147	2.0	281	3.8	16	0.2	101	1.4	$\chi^2=$ 326.629 ***
	14세-16세	1,203	16.4	350	4.8	870	11.9	212	2.9	433	5.9	
	17세-19세	1,056	14.4	364	5.0	755	10.3	414	5.7	610	8.3	
	20세 이상	0	0.0	0	0.0	1	0.0	0	0.0	14	0.2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학력	중/고교 재학중	7	0.3	3	0.1	12	0.5	2	0.1	5	0.2	$\chi^2=$ 62.410 ***
	중/고교 졸업	69	3.1	41	1.8	94	4.2	41	1.8	54	2.4	
	중/고교 학업 중단	649	28.7	136	6.0	333	14.7	174	7.7	359	15.9	
	기타	92	4.1	41	1.8	71	3.1	26	1.1	52	2.3	
	전체	817	36.1	221	9.8	510	22.6	243	10.7	470	20.8	
가족 구성	친부모 가정	1,472	22.5	528	8.1	1,157	17.7	372	5.7	485	7.4	$\chi^2=$ 73.407 ***
	재혼 가정	293	4.5	85	1.3	181	2.8	58	0.9	141	2.2	
	한부모 가정	653	10.0	175	2.7	401	6.1	143	2.2	291	4.4	
	기타	49	0.7	14	0.2	17	0.3	11	0.2	27	0.4	
	전체	2,467	37.6	802	12.2	1,756	26.8	584	8.9	944	14.4	
부모 이혼	예	937	14.4	262	4.0	579	8.9	201	3.1	431	6.6	$\chi^2=$ 56.425 ***
	아니오	1,511	23.2	538	8.3	1,173	18.0	378	5.8	497	7.6	
	전체	2,448	37.6	800	12.3	1,752	26.9	579	8.9	928	14.3	

* $p<.05$, ** $p<.01$, *** $p<.001$

(4)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학교징계 및 비행경험의 차이

- 범죄유형에 따른 학교징계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징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36.6%(2,682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3.7%(1,733명), 기타가 15.5%(1,135명), 강력범죄(홍약) 11.1%(815명), 교통범죄 8.6%(633명) 순으로 나타남. 학교징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강력범죄(폭력)가 2.4%(174명)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가 1.1%(77명), 강력범죄(홍약) 0.6%(46명), 기타 0.3%(23명), 교통범죄 0.1%(9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가출/무단결석/외박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26.5%(1,943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0.0%(1,468명), 기타가 10.4%(762명), 강력범죄(홍악) 9.8%(718명), 교통범죄 6.9%(504명) 순으로 나타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11.1%(816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6.0%(439명), 기타 5.4%(396명), 강력범죄(홍악) 2.0%(143명), 교통범죄 1.9%(138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약물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16.1%(1,179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1.1%(811명), 강력범죄(홍악) 6.8%(497명), 기타 5.8%(425명), 교통범죄 2.8%(202명) 순으로 나타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21.6%(1,580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5.0%(1,096명), 기타 10.0%(733명), 교통범죄 6.0%(440명), 강력범죄(홍악) 5.0%(364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중독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37.3%(2,735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5.9%(1,900명), 기타 15.6%(1,143명), 강력범죄(홍악) 11.5%(842명), 교통범죄 8.7%(640명) 순으로 나타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0.3%(24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홍악)가 0.3%(19명), 기타 0.2%(15명), 강력범죄(폭력) 0.1%(7명), 교통범죄 0.0%(2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범법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37.5%(2,749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5.9%(1,901명), 기타 15.5%(1,133명), 강력범죄(홍악) 11.7%(857명), 교통범죄 8.8%(642명) 순으로 나타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기타가 0.3%(25명)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가 0.1%(10명), 강력범죄(폭력) 0.1%(6명), 강력범죄(홍악) 0.1%(4명), 교통범죄 0.0%(0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노래방/피시방/당구장 출입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30.9%(2,266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1.9%(1,605명), 기타 13.2%(966명), 강력범죄(홍악) 10.3%(757명), 교통범죄 7.0%(515명) 순으로 나타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6.7%(493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4.1%(302명), 기타 2.6%(192명), 교통범죄 1.7%(127명), 강력범죄(홍악) 1.4%(104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성경험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34.9%(2,560

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4.2%(1,771명), 기타 13.2%(968명), 강력범죄(홍악) 10.5%(767명), 교통범죄 8.8%(591명) 순으로 나타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2.7%(199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2.6%(190명), 강력범죄(폭력) 1.9%(136명), 강력범죄(홍악) 1.3%(94명), 교통범죄 0.7%(51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음란물 경험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37.5%(2,747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5.9%(1,897명), 기타 15.7%(1,148명), 강력범죄(홍악) 9.1%(669명), 교통범죄 8.7%(640명) 순으로 나타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강력범죄(홍악)가 2.6%(192명)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가 0.2%(12명), 강력범죄(폭력), 기타가 각 0.1%(10명), 교통범죄 0.0%(2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기타 비행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34.6%(2,535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3.8%(1,746명), 기타 13.1%(959명), 강력범죄(홍악) 11.1%(818명), 교통범죄 7.8%(571명) 순으로 나타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3.1%(224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2.7%(199명), 강력범죄(폭력) 2.2%(161명), 교통범죄 1.0%(71명), 강력범죄(홍악) 0.7%(48명) 순으로 나타남.

표 V-11.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의 학교징계 및 비행 경험 유무의 차이

구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학교 징계 경험	아니오	2,682	36.6	815	11.1	1,733	23.7	633	8.6	1,135	15.5	$\chi^2=146.735$ ***
	예	77	1.1	46	0.6	174	2.4	9	0.1	23	0.3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가출/ 무단 결석/ 외박	아니오	1,943	26.5	718	9.8	1,468	20.0	504	6.9	762	10.4	$\chi^2=112.276$ ***
	예	816	11.1	143	2.0	439	6.0	138	1.9	396	5.4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약물	아니오	1,179	16.1	497	6.8	811	11.1	202	2.8	425	5.8	$\chi^2=129.654$ ***
	예	1,580	21.6	364	5.0	1,096	15.0	440	6.0	733	10.0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중독	아니오	2,735	37.3	842	11.5	1,900	25.9	640	8.7	1,143	15.6	$\chi^2=26.666$ ***
	예	24	0.3	19	0.3	7	0.1	2	0.0	15	0.2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범법	아니오	2,749	37.5	857	11.7	1,901	25.9	642	8.8	1,133	15.5	$\chi^2=55.219$ ***
	예	10	0.1	4	0.1	6	0.1	0	0.0	25	0.3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노래방/ 피사방/ 당구장 출입	아니오	2,266	30.9	757	10.3	1,605	21.9	515	7.0	966	13.2	$\chi^2=21.391$ ***
	예	493	6.7	104	1.4	302	4.1	127	1.7	192	2.6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성경험	아니오	2,560	34.9	767	10.5	1,771	24.2	591	8.8	968	13.2	$\chi^2=99.592$
	예	199	2.7	94	1.3	136	1.9	51	0.7	190	2.6	

구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음란물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
	아니오	2,747	37.5	669	9.1	1,897	25.9	640	8.7	1,148	15.7	$\chi^2=$ 1205.671
	예	12	0.2	192	2.6	10	0.1	2	0.0	10	0.1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
기타	아니오	2,535	34.6	818	11.1	1,746	23.8	571	7.8	959	13.1	$\chi^2=$ 104.382
	예	224	3.1	48	0.7	161	2.2	71	1.0	199	2.7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

* $p<.05$, ** $p<.01$, *** $p<.001$

(5)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심리적 특성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 ADHD 특성을 가진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재산범죄가 36.6%(2,682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 25.6%(1,876명), 기타 15.2%(1,111명), 강력범죄(홍악) 11.2%(824명), 교통범죄 8.6%(628명) 순으로 나타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1.1%(77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0.6%(47명), 강력범죄(홍악) 0.5%(37명), 강력범죄(폭력) 0.4%(31명), 교통범죄 0.2%(14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 품행장애 특성을 가진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재산범죄가 37.6%(2,758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6.0%(1,904명), 기타 15.8%(1,157명), 강력범죄(홍악) 11.7%(860명), 교통범죄 8.8%(642명) 순으로 나타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강력범죄(폭력)가 0.0%(3명)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기타가 각 0.0%(1명), 교통범죄 0.0%(0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 우울증 특성을 가진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재산범죄가 37.5%(2,744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5.9%(1,895명), 기타 15.7%(1,148명), 강력범죄(홍악) 11.7%(859명), 교통범죄 8.7%(640명) 순으로 나타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0.2%(15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0.2%(12명), 기타 0.1%(10명), 강력범죄(홍악), 교통범죄가 각 0.0%(2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 분노조절장애 특성을 가진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재산범죄가 37.6%(2,682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6.0%(1,903명), 기타 15.8%(1,155명), 강력범죄(홍악)

11.7%(860명), 교통범죄 8.7%(641명) 순으로 나타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강력범죄(폭력)가 0.1%(4명)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 기타가 각 0.0%(3명), 강력범죄(흉악), 교통범죄가 각 0.0%(1명) 순으로 나타남.

표 V-12.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심리적 특성의 차이

구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ADHD	아니오	2,682	36.6	824	11.2	1,876	25.6	628	8.6	1,111	15.2	$\chi^2=$ 24.303 ***
	예	77	1.1	37	0.5	31	0.4	14	0.2	47	0.6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품행장애	아니오	2,758	37.6	860	11.7	1,904	26.0	642	8.8	1,157	15.8	$\chi^2=$ 2.681
	예	1	0.0	1	0.0	3	0.0	0	0.0	1	0.0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우울증	아니오	2,744	37.5	859	11.7	1,895	25.9	640	8.7	1,148	15.7	$\chi^2=$ 4.469
	예	15	0.2	2	0.0	12	0.2	2	0.0	10	0.1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분노조절장애	아니오	2,756	37.6	860	11.7	1,903	26.0	641	8.7	1,155	15.8	$\chi^2=$ 1.523
	예	3	0.0	1	0.0	4	0.1	1	0.0	3	0.0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 $p<.05$, ** $p<.01$, *** $p<.001$

(6)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전과 특성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전과 유무 차이를 살펴보면 전과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16.7%(1,224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4.1%(1,035명), 강력범죄(흉악) 7.9%(576명), 기타 4.6%(340명), 교통범죄 1.9%(142명) 순으로 나타남. 전과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20.9%(1,535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1.9%(872명), 기타 11.2%(818명), 교통범죄 6.8%(500명), 강력범죄(흉악) 3.9%(285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전과 횟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과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16.7%(1,224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4.1%(1,035명), 강력범죄(흉악) 7.9%(576명), 기타 4.6%(340명), 교통범죄 1.9%(142명) 순으로 나타남. 전과 경험이 1범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8.7%(634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5.3%(391명), 기타 2.7%(201명), 교통범죄 2.5%(181명), 강력범죄(흉악) 2.0%(148명) 순으로 나타남. 전과 경험이 2범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5.1%(377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2.8%(204명), 기타 2.6%(192명), 교통범죄 2.0%(143명), 강력범죄(흉악) 0.8%(61명) 순으로 나타남. 전과 경험이 3범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2.9%(212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2.0%(146명), 강력범죄(폭력) 1.4%(105명), 교통범죄 1.0%(74명), 강력범죄(흉악) 0.5%(34명) 순으로 나타남. 전과 경험이 4범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1.7%(127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1.7%(121명), 강력범죄(폭력) 1.5%(108명), 교통범죄 0.8%(55명), 강력범죄(흉악) 0.3%(20명) 순으로 나타남. 전과 경험이 5범 이상인 경우는 재산범죄가 2.5%(185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2.2%(158명), 강력범죄(폭력) 1.5%(108명), 교통범죄 0.8%(55명), 강력범죄(흉악) 0.3%(22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동종전과 차이를 살펴보면 전과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산범죄가 21.3%(853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17.0%(684명), 기타 12.7%(511명), 강력범죄(흉악) 6.8%(271명), 교통범죄 6.0%(240명) 순으로 나타남. 동종전과 경험이 없는 경우 재산범죄가 17.1%(688명)로 가장 많고, 강력범죄(폭력)가 8.3%(333명), 교통범죄 4.5%(180명), 기타 3.6%(143명), 강력범죄(흉악) 2.7%(110명) 순으로 나타남.

표 V-13.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 전과 특성

구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과 유무	아니오	1,224	16.7	576	7.9	1,035	14.1	142	1.9	340	4.6	$\chi^2=$ 483.059 ***
	예	1,535	20.9	285	3.9	872	11.9	500	6.8	818	11.2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전과 횟수	0범	1,224	16.7	576	7.9	1,035	14.1	142	1.9	340	4.6	$\chi^2=$ 653.245 ***
	1범	634	8.7	148	2.0	391	5.3	181	2.5	201	2.7	
	2범	377	5.1	61	0.8	204	2.8	143	2.0	192	2.6	
	3범	212	2.9	34	0.5	105	1.4	74	1.0	146	2.0	
	4범	127	1.7	20	0.3	64	0.9	47	0.6	121	1.7	
	5범 이상	185	2.5	22	0.3	108	1.5	55	0.8	158	2.2	
	전체	2,759	37.7	861	11.8	1,907	26.0	642	8.8	1,158	15.8	
동종 전과	아니오	853	21.3	271	6.8	684	17.0	240	6.0	511	12.7	$\chi^2=$ 127.916 ***
	예	688	17.1	110	2.7	333	8.3	180	4.5	143	3.6	
	전체	1,541	38.4	381	9.5	1,017	25.3	420	10.5	654	16.3	

* $p<.05$, ** $p<.01$, *** $p<.001$

2. 소년범죄 단독범 및 공범 특성

1) 소년범죄 단독범 및 공범 현황

- 소년범 사건은 단독범의 비율이 높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 1명>3명 이상>2명의 순으로 나타남.
- 소년범 공범유무를 살펴보면 단독범인 경우가 59.5%(4,363명)로 가장 많고, 공범인 경우가 37.9%(2,782건)의 순으로 나타남*.

표 V-14. 소년범죄 공범 유무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단독범	4,363	59.5
공범	2,782	37.9
결측	18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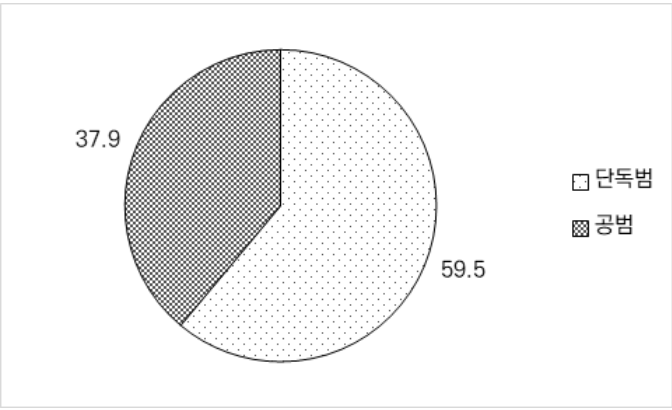


그림 V-3. 소년범죄 공범 유무

* 그림에는 결측값을 제외하고 제시함.

- 소년범 공범 수를 살펴보면 0명인 경우가 59.5%(4,363건)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 14.7%(1,075건), 3명 이상인 경우 12.7%(933건), 2명인 경우 10.5%(769건) 순으로 최소값 0, 최대값 12, 평균값 0.91, 표준편차 1.53로 나타남.

표 V-15. 소년범죄 공범수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0명	4,363	59.5
1명	1,075	14.7
2명	769	10.5
3명 이상	933	12.7
결측	193	2.6
전체	min=0, max=12($M=0.91$, $SD=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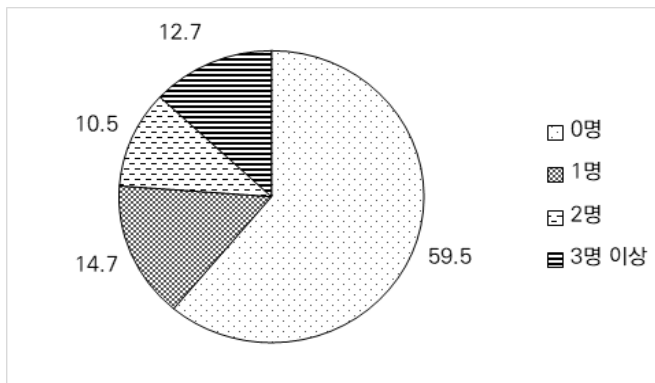


그림 V-4. 소년범죄 공범수

2)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단독범 및 공범 특성

- (1)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단독범 및 공범 수의 차이
- 소년범 성별에 따른 공범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범유무($\chi^2=29.424$, $p<.001$)와 공범수($\chi^2=36.70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단독범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자는 단독범과 공범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공범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공범수가 1명> 3명 이상> 2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3명 이상>1명>2명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수를 살펴보면 남자는 단독범이 50.0%(2,446명)로 가장 많고, 1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가 12.1%(591명), 3명 이상의 공범이 있는 경우 10.7%(522명), 2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 8.7%(423명)의 순으로 나타남. 여자는 단독범이 9.6%(469명)로 가장 많고, 3명 이상의 공범이 있는 경우가 3.4%(168명), 1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 2.9%(140명), 2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 2.7%(13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16.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특성의 차이

구분		남자		여자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공범 유무	단독범	2,446	50.0	469	9.6	$\chi^2=29.424^{***}$
	공범	1,539	31.4	440	9.0	
	전체	3,985	81.4	99	18.6	
공범 수	0명	2,446	50.0	469	9.6	$\chi^2=36.703^{***}$
	1명	591	12.1	140	2.9	
	2명	423	8.7	131	2.7	
	3명이상	522	10.7	168	3.4	
	전체	3,982	81.4	908	18.6	

* $p<.05$, ** $p<.01$, *** $p<.001$

(2) 연령에 따른 단독범 및 공범의 차이

- 소년범 연령에 따른 공범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범유무($\chi^2=167.792$, $p<.001$)와 공범수($\chi^2=173.76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4세에서 16세의 공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7세에서 19세 공범, 10세에서 13세 공범의 비율을 볼 수 있음. 공범의 수가 1명, 2명, 3명 이상 모두 14세에서 16세의 소년범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볼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유무를 살펴보면 10세-13세는 단독범인 경우가 8.5%(605명)로 많고, 공범인 경우가 5.8%(415명)로 나타남. 14세-16세는 단독범인 경우가 22.3%(1,590명)로 많고, 공범인 경우가 19.6%(1,400명)로 나타남. 17세-19세는 단독범인 경우가 30.2%(2,155명)로 많고, 공범인 경우가 13.5%(965명)로 나타남. 20세 이상은 단독범인 경우가 0.2%(13명)로 많고, 공범인 경우가 0.0%(2명)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수를 살펴보면 10세-13세는 단독범인 경우가 8.5%(605명)로 가장 많았고, 1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가 2.1%(149명), 공범이 3명 이상인 경우 2.0%(143명), 공범이 2명인 경우 1.7%(123명)의 순으로 나타남. 14세-16세는

단독범인 경우가 22.3%(1,590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7.3%(524명), 공범이 3명이상인 경우 6.8%(488명), 공범이 2명인 경우 5.4%(384명)의 순으로 나타남. 17세-19세는 단독범인 경우가 30.2%(2,155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4.6%(400명), 공범이 3명 이상인 경우가 4.2%(302명), 공범이 2명인 경우가 3.7%(262명)의 순으로 나타남. 20세 이상은 단독범인 경우가 0.2%(13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0.0%(2명), 공범이 2명인 경우가 0.0%(0명), 공범이 3명이상인 경우가 0.0%(0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17.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특성의 차이

구분		10세-13세		14세-16세		17세-19세		20세 이상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공범유무	단독범	605	8.5	1,590	22.3	2,155	30.2	13	0.2	$\chi^2=167.792^{***}$
	공범	415	5.8	1,400	19.6	965	13.5	2	0.0	
	전체	1,020	14.3	2,990	41.8	3,120	43.7	15	0.2	
공범수	0명	605	8.5	1,590	22.3	2,155	30.2	13	.2	$\chi^2=173.765^{***}$
	1명	149	2.1	524	7.3	400	5.6	2	.0	
	2명	123	1.7	384	5.4	262	3.7	0	0.0	
	3명이상	143	2.0	488	6.8	302	4.2	0	0.0	
	전체	1,020	14.3	2,986	41.8	3,119	43.7	15	.2	

* $p<.05$, ** $p<.01$, *** $p<.001$

(3) 학력에 따른 단독범 및 공범의 차이

- 소년범 학력에 따른 공범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범유무와 공범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유무를 살펴보면 중/고교재학중은 단독범인 경우가 1.0%(22명)로 많고, 공범인 경우가 0.3%(7명)로 나타남. 중/고교졸업은 단독범인 경우가 9.2%(205명)로 많고, 공범인 경우가 4.2%(93명)로 나타남. 중/고교학업중단은 단독범인 경우가 45.2%(1,005명)로 많고, 27.8%(618명)로 나타남. 기타는 단독범인 경우가 8.6%(191명)로 많고, 공범인 경우가 3.8%(275명)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수를 살펴보면 중/고교재학중은 단독범인 경우가 1.0%(22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0.1%(3명), 공범이 2명인 경우가 0.1%(2명), 공범이 3명 이상인 경우가 0.1%(2명)의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졸업은 단독범인 경우가 9.2%(205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1.7%(37명),

공범이 3명 이상인 경우가 1.5%(35명), 공범이 2명인 경우가 1.0%(22명)의 순으로 나타남. 중/고교학업중단은 단독범인 경우가 45.2%(1,005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12.2%(271명), 공범이 3명 이상인 경우가 8.3%(185명), 공범이 2명인 경우가 7.2%(159명)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단독범인 경우가 8.6%(191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1.6%(36명), 공범이 3명 이상인 경우 1.3%(28명), 공범이 2명인 경우 0.9%(20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18.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특성의 차이

구분		중/고교재학중		중/고교졸업		중/고교학업중단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공범유무	단독범	22	1.0	205	9.2	1,005	45.2	191	8.6	$\chi^2=11.325$
	공범	7	0.3	93	4.2	618	27.8	84	3.8	
	전체	29	1.3	298	13.4	1,623	72.9	275	12.4	
공범수	0명	22	1.0	205	9.2	1,005	45.2	191	8.6	$\chi^2=12.673$
	1명	3	0.1	37	1.7	271	12.2	36	1.6	
	2명	2	0.1	22	1.0	159	7.2	20	0.9	
	3명이상	2	0.1	34	1.5	185	8.3	28	1.3	
	전체	29	1.3	298	13.4	1,620	72.9	275	12.4	

* $p<.05$, ** $p<.01$, *** $p<.001$

(4) 가족특성에 따른 단독범 및 공범의 차이

- 소년범 가족특성에 따른 단독범과 공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구성에 따라 공범유무와 공범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이혼여부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의 특성의 차이에서는 공범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범수($\chi^2=11.045$,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수를 살펴보면 친부모가정은 단독범인 경우가 37.4%(2,412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8.7%(561명), 공범이 3명이상인 경우 8.6%(556명), 공범이 2명인 경우가 6.7%(429명)의 순으로 나타남. 재혼가정은 단독범인 경우가 7.2%(463명), 공범이 1명인 경우가 1.9%(124명), 공범이 3명이상인 경우가 1.4%(91명), 공범이 2명인 경우가 1.1%(68명)의 순으로 나타남. 한부모 가정은 단독범인 경우가 15.0%(969명), 공범이 1명인 경우 4.3%(275명), 공범이 3명이상인 경우 3.2%(206명), 공범이 2명인 경우 2.8%(179명)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단독범인 경우가 1.1%(71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0.3%(18명), 공

범이 2명인 경우가 0.3%(17명), 3명이상인 경우 0.2%(1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19.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 특성의 차이

구분		친부모가정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공범 유무	단독범	2,412	37.4	463	7.2	969	15.0	71	1.1	$\chi^2=1.722$
	공범	1,549	24.0	283	4.4	661	10.2	47	0.7	
	전체	3,961	61.4	746	11.6	1,630	25.3	118	1.8	
공범 수	0명	2,412	37.4	463	7.2	969	15.0	71	1.1	$\chi^2=15.098$
	1명	561	8.7	124	1.9	275	4.3	18	0.3	
	2명	429	6.7	68	1.1	179	2.8	17	0.3	
	3명이상	556	8.6	91	1.4	206	3.2	11	0.2	
	전체	3,958	61.4	746	11.6	1,629	25.3	117	1.8	

* $p<.05$, ** $p<.01$, *** $p<.001$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유무를 살펴보면 이혼가정은 단독범인 경우가 22.2%(1,421명)로 많고, 공범인 경우가 14.7%(943명)로 나타남. 비이혼가정은 단독범인 경우가 38.4%(2,459명)로 많고, 공범인 경우가 24.7%(1,585명)로 나타남.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수를 살펴보면 이혼가정은 단독범인 경우가 22.2%(1,421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6.3%(402명), 공범이 3명 이상인 경우 4.6%(295명), 공범이 2명인 경우 3.8%(245명)의 순으로 나타남. 비이혼가정은 단독범인 경우가 38.4%(2,459명)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경우가 8.9%(573명), 공범이 3명이상인 경우가 8.8%(566명), 공범이 2명인 경우가 6.9%(443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20.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공범유무의 차이

($n=6,408$)

구분		이혼		비이혼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공범 유무	단독범	1,421	22.2	2,459	38.4	$\chi^2=0.303$
	공범	943	14.7	1,585	24.7	
	전체	2,364	36.9	4,044	63.1	
공범 수	0명	1,421	22.2	2,459	38.4	$\chi^2=11.045^*$
	1명	402	6.3	573	8.9	
	2명	245	3.8	443	6.9	
	3명이상	295	4.6	566	8.8	
	전체	2,363	36.9	4,041	63.1	

* $p<.05$, ** $p<.01$, *** $p<.001$

3. 소년범의 재범 특성

1) 소년범 재범현황

- 소년범의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재범을 하지 않은 소년범은 56.8%였으며, 재범을 한 소년범은 43.2%로 나타남. 전체 소년범의 평균 재범 횟수는 1.07회이며, 최대 25번의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소년범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없음이 56.8%(4,167명)로 가장 많고, 1회가 21.4%(1,569명), 2회가 8.9%(653명), 5회 이상이 5.7%(416명), 3회가 4.4%(326명), 4회 2.8%(202명)의 순으로 최솟값 0, 최댓값 25, 평균값 1.07, 표준편차 2.06으로 나타남.

표 V-21. 소년범의 재범현황

(n=7,333)

구분			빈도	퍼센트
재범	없음		4,167	56.8
	있음	소계	3,166	43.2
		1회	1,569	21.4
		2회	653	8.9
		3회	326	4.4
		4회	202	2.8
		5회 이상	416	5.7
	전체		min=0, max=25($M=1.07$, $SD=2.06$)	

2) 소년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범의 차이

- (1) 성별에 따른 소년범 재범 특성의 차이
- 성별에 따른 소년범 재범유무와 재범횟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유무를 살펴보면 남자는 있음이 38.2%(1,919명), 없음이 42.7%(2,145명)로 나타남. 여자는 있음이 9.2%(464명), 없음이 9.9%(496명)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횟수를 살펴보면 남자는 재범이 없는 경우가 42.7%(2,145

명)로 가장 많고, 재범횟수가 1회인 경우가 18.0%(906명), 2회가 7.9%(399명), 5회 이상이 5.6%(282명), 3회가 4.0%(201명), 4회 2.6(131명)의 순으로 나타남. 여자는 재범이 없는 경우가 9.9%(496명)로 가장 많고, 재범 횟수가 1회인 경우가 4.4%(222명), 2회가 1.9%(97명), 5회 이상이 1.2%(60명), 3회가 1.1%(57명), 4회 0.6%(28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22. 성별에 따른 소년범 재범특성의 차이

구분		남자		여자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재범 유무	있음	1,919	38.2	464	9.2	$\chi^2=0.386$
	없음	2,145	42.7	496	9.9	
	전체	4,064	80.9	960	19.1	
재범 횟수	0회	2,145	42.7	496	9.9	$\chi^2=2.746$
	1회	906	18.0	222	4.4	
	2회	399	7.9	97	1.9	
	3회	201	4.0	57	1.1	
	4회	131	2.6	28	0.6	
	5회 이상	282	5.6	60	1.2	

* $p<.05$, ** $p<.01$, *** $p<.001$

(2) 연령에 따른 소년범 재범 특성의 차이

○ 연령에 따른 소년범 재범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재범횟수($\chi^2=407.469$, $p<.001$)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17세에서 19세 소년범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의 재범 비율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유무를 살펴보면 있음은 10세-13세는 2.3%(167명), 14세-16세는 18.9%(1,385명), 17세-19세는 21.9%(1,609명), 20세 이상은 0.1%(5명), 없음은 10세-13세는 12.0%(878명), 14세-16세는 23.0%(1,687명), 17세-19세는 21.7%(1,592명), 20세 이상은 0.1%(10명)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 횟수를 살펴보면 0회는 10세-13세는 12.0%(878명), 14세-16세는 23.0%(1,687명), 17세-19세는 21.7%(1,592명), 20세 이상은 0.1%(10

명), 1회는 10세-13세는 1.5%(112명), 14세-16세는 9.5%(693명), 17세-19세는 10.4%(759명), 20세 이상은 0.1%(5명), 3회는 10세-13세는 0.4%(27명), 14세-16세는 3.7%(269명), 17세-19세는 4.9%(357명), 20세 이상은 0.0%(0명), 4회는 10세-13세는 0.1%(4명), 14세-16세는 1.2%(90명), 17세-19세는 1.5%(108명), 20세 이상은 0.0%(0명), 5회 이상은 10세-13세는 0.1%(7명), 14세-16세는 2.5%(227명), 17세-19세는 3.1%(227명), 20세 이상은 0.0%(0명)로 나타남.

표 V-23. 연령에 따른 소년범 재범특성의 차이

구분		10세-13세		14세-16세		17세-19세		20세이상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재범 유무	있음	167	2.3	1,385	18.9	1,609	21.9	5	0.1	$\chi^2=$ 385.743
	없음	878	12.0	1,687	23.0	1,592	21.7	10	0.1	
	전체	1,045	14.3	3,072	41.9	3,201	43.7	15	0.2	
재범 횟수	0회	878	12.0	1,687	23.0	1,592	21.7	10	0.1	$\chi^2=$ 407.469***
	1회	112	1.5	693	9.5	759	10.4	5	0.1	
	2회	27	0.4	269	3.7	357	4.9	0	0.0	
	3회	17	0.2	151	2.1	158	2.2	0	0.0	
	4회	4	0.1	90	1.2	108	1.5	0	0.0	
	5회 이상	7	0.1	182	2.5	227	3.1	0	0.0	
	전체	1,045	14.3	3,072	41.9	3,201	43.7	15	0.2	

* $p<.05$, ** $p<.01$, *** $p<.001$

(3) 학력에 따른 소년범 재범 특성의 차이

- 학력에 따른 소년범 재범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라 재범유무와 재범 횟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유무를 살펴보면 재범이 있는 학생은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41.2%(931명)로 가장 많고, 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5.7%(129명), 기타 6.4%(145명), 중/고교를 재학중인 경우 0.8%(17명) 순으로 나타남. 재범이 없는 학생은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31.9%(721명)로 가장 많고, 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7.5%(170명), 기타 6.1%(137명), 중/고교를 재학중인 경우 0.5%(12명) 순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 횟수를 살펴보면 재범 횟수가 없는 학생은 중/고교 학업

중단인 경우가 31.9%(721명)로 가장 많고, 중/고교 졸업인 경우가 7.5%(170명), 기타 6.1%(137명), 중/고교 재학중 0.5%(12명)의 순으로 나타남. 재범 횟수 1회는 중/고교 학업중단인 경우가 18.8%(426명)로 가장 많고, 중/고교 졸업인 경우가 3.2%(73명), 기타 2.7%(60명), 중/고교 재학중 0.2%(4명)의 순으로 나타남. 재범 횟수가 2회인 학생은 중/고교 학업중단인 경우가 8.8%(200명)로 가장 많고, 중/고교 졸업인 경우가 3.2%(73명), 기타 2.7%(60명), 중/고교 재학중 0.1%(4명)의 순으로 나타남. 재범 횟수 3회는 학생은 중/고교 학업중단인 경우가 4.3%(98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0.8%(18명), 중/고교 졸업인 경우가 0.6%(13명), 중/고교 재학중 0.1%(2명)의 순으로 나타남. 재범 횟수 4회는 학생은 중/고교 학업중단인 경우가 3.2%(73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0.4%(8명), 중/고교 졸업인 경우가 0.2%(5명), 중/고교 재학중 0.1%(3명)의 순으로 나타남. 재범 횟수가 5회 이상인 학생은 중/고교 학업중단인 경우가 5.9%(134명)로 가장 많고, 기타가 0.9%(20명), 중/고교 졸업인 경우가 0.4%(8명), 중/고교 재학중 0.2%(5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V-24. 학력에 따른 소년범 재범 특성의 차이

구분		중/고교재학중		중/고교졸업		중/고교학업중단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재범 유무	있음	17	0.8	129	5.7	931	41.2	145	6.4	$\chi^2=18.885$
	없음	12	0.5	170	7.5	721	31.9	137	6.1	
	전체	29	1.3	299	13.2	1,652	73.0	282		
재범 횟수	0회	12	0.5	170	7.5	721	31.9	137	6.1	$\chi^2=39.647$
	1회	4	0.2	73	3.2	426	18.8	60	2.7	
	2회	3	0.1	30	1.3	200	8.8	39	1.7	
	3회	2	0.1	13	0.6	98	4.3	18	0.8	
	4회	3	0.1	5	0.2	73	3.2	8	0.4	
	5회이상	5	0.2	8	0.4	134	5.9	20	0.9	
	전체	29	1.3	299	13.2	1,652	73.0	282	12.5	

* $\alpha<.05$, ** $\alpha<.01$, *** $\alpha<.001$

(4) 가족특성에 따른 소년범 재범 특성의 차이

- 가족특성에 따른 소년범 재범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구성 및 부모이혼 여부에 따라 재범유무와 재범횟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가족구성에 따른 소

년범 재범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범유무($\chi^2=86.886$, $p<.001$)와 재범횟수($\chi^2=137.74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혼 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재범을 하는 소년범의 차이가 친부모가정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부모이혼에 따른 재범유무($\chi^2=76.703$, $p<.001$)와 재범횟수($\chi^2=96.84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 구성에 따른 소년범죄재범유무를 살펴보면 친부모가정은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38.7%(2,538명)로 많고, 재범을 한 경우가 22.5%(1,478명)로 나타남. 재혼가정은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5.9%(385명)로 많고, 재범을 한 경우가 5.7%(373명)로 나타남. 한부모가정은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13.3%(873명)로 많고, 재범을 한 경우는 12.1%(791명)로 나타남. 기타는 재범을 한 경우가 1.0%(63명)로 많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0.8%(55명)로 나타남.
- 가족특성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횟수를 살펴보면 친부모가정은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38.7%(2,538명)로 가장 많고, 1회가 12.4%(810명), 2회 5.0%(326명), 3회 2.0%(133명), 5회 이상 2.0%(130명), 4회 1.2%(79명) 순으로 나타남. 재혼가정은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5.9%(385명)로 가장 많고, 1회가 2.3%(152명), 2회 1.3%(87명), 5회 이상 0.9%(56명), 3회 0.6%(41명), 4회 0.6%(37명) 순으로 나타남. 한부모가정은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13.3%(873명)로 가장 많고, 1회가 6.5%(425명), 2회 2.3%(152명), 5회 이상 1.5%(96명), 3회 1.1%(74명), 4회 0.7%(44명)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0.8%(55명)로 가장 많고, 1회가 0.6%(39명), 2회 0.2%(13명), 4회 0.1%(5명), 3회와 5회 이상이 각 0.0%(3명) 순으로 나타남.

표 V-25. 가족구성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 특성의 차이

구분		친부모가정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재범 유무	있음	1,478	22.5	373	5.7	791	12.1	63	1.0	$\chi^2=86.886$ ***
	없음	2,538	38.7	385	5.9	873	13.3	55	0.8	
	전체	4,016	61.3	758	11.6	1,664	25.4	118	1.8	
재범 횟수	0회	2,538	38.7	385	5.9	873	13.3	55	0.8	$\chi^2=137.746$ ***
	1회	810	12.4	152	2.3	425	6.5	39	0.6	
	2회	326	5.0	87	1.3	152	2.3	13	0.2	
	3회	133	2.0	41	0.6	74	1.1	3	0.0	
	4회	79	1.2	37	0.6	44	0.7	5	0.1	
	5회이상	130	2.0	56	0.9	96	1.5	3	0.0	
	전체	4,016	61.3	758	11.6	1,664	25.4	118	1.8	

* $\alpha:0.05$, ** $\alpha:0.01$, *** $\alpha:0.001$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유무를 살펴보면 이혼가정은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19.2%(1,249명)로 많고, 재범을 한 경우가 17.8%(1,162명)로 나타남. 미이혼가정은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39.6%(2,577명)로 많고, 재범을 한 경우가 23.4%(1,522명)로 나타남.
-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횟수를 살펴보면 이혼가정의 경우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19.2%(1,249명)로 가장 많았고, 재범을 1번 한 경우가 8.8%(575명), 재범을 2번 한 경우 3.7%(240명), 재범을 5번 이상 한 경우 2.3%(152명), 재범을 3번 한 경우 1.7%(113명), 재범을 4번 한 경우 1.3%(82명)로 나타남. 비이혼가정은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가 39.6%(2,577명)로 가장 많았고, 재범을 1번 한 경우가 12.8%(836명), 재범을 2번 한 경우 5.1%(334명), 재범을 3번 한 경우 2.1%(136명), 재범을 5번 이상 한 경우 2.0%(133명), 재범을 4번 한 경우 1.3%(83명)로 나타남.

표 V-26. 부모이혼에 따른 소년범죄 재범특성의 차이

구분		이혼		미이혼		통계값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재범유무	있음	1,162	17.8	1,522	23.4	$\chi^2=76.703^{***}$
	없음	1,249	19.2	2,577	39.6	
	전체	2,411	37.0	4,099	63.0	
재범 횟수	0회	1,249	19.2	2,577	39.6	$\chi^2=96.840^{***}$
	1회	575	8.8	836	12.8	
	2회	240	3.7	334	5.1	
	3회	113	1.7	136	2.1	
	4회	82	1.3	83	1.3	
	5회이상	152	2.3	133	2.0	
	전체	2,411	37.0	4,099	63.0	

* $p<.05$, ** $p<.01$, *** $p<.001$

○———— 제6장 결론 및 논의

- 본 연구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데이터 구축하고 기초분석을 실시함. 주요한 분석은 소년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학력, 가정특성, 비행경험 유무, 심리적 특성 등에 따른 소년범의 특성, 소년범죄 발생사건 및 처리, 소년범죄 범행특성의 빈도 및 차이를 분석함.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판기록과 데이터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에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로 볼 수 있음. 이 자료를 기초분석결과 소년범의 범죄(유형, 빈도, 횟수, 재범 등)는 부분적으로 특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줌. 한편, 소년법 적용대상의 연령 하향,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특정강력범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찬반 격론이 지속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소년법 처벌 강화에 있어, 다양한 소년범의 특성 중 ‘연령’에 초점을 맞춘 연령 하향의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의 가장 일반적인 최소연령을 14세로 규정한 바 있으며(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2019.9.18.), 유엔 보고서에서는 소년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4세로 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음(General Assembly, 2019.7.11.).
- 해외 사례로, 일본의 경우,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적이 있음. 일본에서는 소년법상 형사처분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였다가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14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촉법소년에

* 이 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정의를 교수(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자문의견을 반영함.

의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007년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소년원 송치 대상 연령 기준을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음. 이처럼 일본에서도 과거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촉법소년에 의한 흉악범죄가 발생하여 소년법 적용 범위에 큰 변화가 있었음. 그러나 엄벌화 대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에 의한 흉악범죄가 근절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소년연령 하향에 대한 회의론이 강해진 상황으로 분석됨(배상균, 2022).

-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억제이론(처벌의 강화를 통해 범죄를 억제)을 바탕으로 볼 때, 오히려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음. 예를 들어, 보호관찰대상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연구(정의롭, 2014)에서는 경고와 같은 처벌적 성격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보다 원호조치와 같은 보호적 성격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결과를 보임.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흉악범죄의 심각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태임. 소년범 처벌에 있어, 일단 하향된 연령은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서도 주의해야 함(김혜경, 2022).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대안이 궁극적으로 소년범죄 감소 및 예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 및 기초분석은 이러한 논의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와 기초분석은 소년범죄의 특성과 소년범죄 및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는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 제도의 지향점에 근거를 마련할 것임.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데이터와 기초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범죄 동기 분석 및 해소 방안 등 소년범죄에 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논문과 저서]

- 김혜경. (2022). 소년법관련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미국의 소년범죄자 처우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4(1), 373-407.
- 배상균. (2022). 일본 소년범죄 현황과 대책에 대한 검토. **외법논집**, 46(3), 27-48.
- 이승현. (2018).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서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B-07).
- 정의롬. (2014).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국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국내정책자료]

- 검찰. (2021). 09. 부록 및 판권. **2021 범죄분석, 통권 154호**, 1-27.
- 법무부 보도자료. (2022.10.26.).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0MTc1JTJGYXJ0Y2xWaWV3LmRvJTNG>

[국외정책자료]

- General Assembly. (2019.7.11.).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United Nations, <https://undocs.org/en/A/74/136> 에서 2022.9.10. 인출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2019.9.18.). *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 in the child justice system*. UN Treaty Body Database,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DocTypeID=11&Lang=en&TreatyID=5 에서 2022.10.5. 인출

[언론보도 자료]

경향신문. (2022.3.4.) 범죄를 택한 건 소년이지만 그들을 보호 안 한 사회도 '유죄'다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203041601015>
에서 2022.8.8. 인출

국가법령센터, 형법 제 9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에서 2022.8.31. 인출
국가법령센터, 헌법 제 109조 <https://www.law.go.kr/법령/헌법> 에서 2022.8.31. 인출
대검찰청 홈페이지. 2021 범죄분석: 9. 부록 및 판권,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에서 2022.8.25. 인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보호처분, https://www.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에서 2022.8.26. 인출

본 연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득한 소년보호사건 기록의 데이터 구축을 통해 소년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사건 기록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 총 7,333건의 소년보호사건 기록(2010년부터 2017년까지)에 해당하며, 소년 법정 재판사건의 기록과 판결문을 조사표 형식에 맞추어 전사 및 입력 작업하였음. 구체적으로 1) 개요, 2) 사건, 3) 사건특성, 4) 보호소년 특징, 5) 기일결과 특성, 6) 보호자, 보조인, 소송관계인 특성, 7) 기타사항 특성의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코딩하였으며, 주요변인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분석에 사용한 주요변인은 소년범의 특성(성별, 연령, 학력, 가정특성, 학교징계경험, 비행경험, 심리적 특성, 전과 유무 및 특성 등), 소년범죄 관련 요인에서 발생 사건 및 처리(판결 및 사건 발생 현황, 처분결과 현황 및 특성), 범행 특성(유형 및 사건 특성, 단독범 및 공범 특성, 재범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을 바탕으로 각 요소가 소년범 특성 및 범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함.

본 연구에서 데이터화 한 자료와 기초분석은 소년범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 제도 지향점에 근거를 마련할 것임.

주제어 : 소년보호사건 기록, 데이터 구축, 기초분석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연구

인 쇄 2022년 11월 30일

발 행 2022년 11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식회사 다원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